

KYUNG



HEE

경희대학교
전공 탐색 가이드북 [부록]
나의 전공 이야기



UNIV.



경희대학교 자율전공학부



대학혁신지원사업

2 25



목차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04
영어영문학과	07
응용영어통번역학과	09
사학과	11
철학과	14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17
행정학과	19
사회학과	23
경제학과	26
무역학과	28
미디어학과	30



경영대학

경영학과	34
회계·세무학과	36
빅데이터응용학과	38

호텔관광대학

Hospitality 경영학과	40
조리&푸드디자인학과	43
관광·엔터테인먼트학부	
- 관광학과	45
-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48
글로벌Hospitality·관광학과	51

이과대학

수학과	53
물리학과	55
화학과	58
생물학과	60
지리학과	62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65
주거환경학과	68
의상학과	71
식품영양학과	74

약학대학

약과학과	76
------	----

자율전공학부

글로벌리더전공	78
---------	----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21학번 정 해 인

재학생 이야기

[전공 소개]

Q 간단히 본인의 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이 전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국어국문학과에서는 크게 ‘국어학’과 ‘국문학’을 다룹니다. 전자는 국어 음성, 음운, 문법 등을 배울 수 있으며 최근에는 컴퓨터가 읽을 수 있게 언어 자료를 만드는 말뭉치 수업이 개설되는 등 디지털 언어학 쪽으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후자는 고전문학부터 현대문학, 문학치료 등 다양한 문학 텍스트를 다룹니다. 창작 수업도 있어서 작품 분석뿐만 아니라 직접 작품을 창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문화 콘텐츠 트랙도 생겨서 대중문화나 문화 콘텐츠 스토리텔링 및 기획 등 실용적이고 트렌디한 내용을 배우기도 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문화 콘텐츠는 무엇인지, 왜 대중은 그 문화 콘텐츠에 몰입하는지, 그 속의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국어국문학을 딱딱한 전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활발하고 다양한 내용이 많은 전공이기도 합니다.

[전공 선택 계기]

Q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고등학교 국어 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현대 문학에 큰 관심이 있었는데, 단순히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 끌렸습니다. 문학은 나 자신과 타인의 삶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통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토대로 공부하고 학생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첨언하자면, 제 주변 선배나 동기들은 더 다양한 이유로 전공을 선택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기자, PD, 문학가, 출판업계 등 우리가 국어국문, 하면 생각나는 전통적인 진로뿐 아니라, 최근에는 웹소설, 영상 콘텐츠 기획 등 새로운 분야를 생각하고 국어국문학과에 오는 친구들이 있기도 합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조언은 무엇이었고, 누가 해주었나요?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조언은, “문학은 단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읽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조언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저는 문학이 그냥 좋아서 막연히 관련 전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서 문학이 삶과 사회를 바라보는 깊은 시선을 길러준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문학을 통해 사람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은 지금까지도 제 전공 선택뿐만 아니라, 내가 ‘대학’이라는 공간에 와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확신을 주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고 남들이 추천하는 전공이라도, 내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즐기지 못한다면 결국엔 방향을 다시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느껴요.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할 때, 더 깊이 있게 몰입할 수 있고 스스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그 전공이 어떤 진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나의 성향이나 강점과 잘 맞는지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이 곧 직업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방향을 어느 정도는 잡아줄 수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하고 싶은 일과 현실적인 조건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공 공부의 현실]

Q 전공 선택 전후로 기대했던 점과 실제 느낀 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감성적’이라고 다들 오해하지만, 사실은 ‘논리적’을 탐색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는 국어국문학과라고 하면 문학 작품을 많이 읽고 감상하거나, 작가의 의도를 해석하는 전형적인 한국 문학 공부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학뿐만 아니라 언어학, 고전문헌, 작문이나 표현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 생각보다 학문적인 깊이나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국어문법론’이나 ‘국어 단어의 형태와 이해’ 등의 수업은 언어 구조를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중심이었습니다. 단순히 글을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읽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많았다는 점이 예상과 달랐고, 동시에 그 점이 이 전공의 매력이기도 했습니다.

Q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현대문학과 예술철학, 비평이 사회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공부하면서 전공을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문학이 단순히 감성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지만, 공부를 계속할수록 문학은 동시대의 사회, 정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해 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문학이 사회적 억압, 젠더 문제, 계급 구조 같은 현실을 어떻게 드러내고 저항하는지를 읽어내는 과정에서, 문학이 곧 사회를 읽는 렌즈가 될 수 있다는 걸 체감했어요. 또 예술철학 수업을 통해 “왜 이 시대에 이런 예술이 나왔는가?”를 고민하면서, 문학이 단순히 읽는 대상이 아니라 ‘사유하고 참여하는 행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제가 이 전공을 공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만들어주었고, 사회와 연결되는 지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Q 전공에서 추천하고 싶은 교과목이 있다면?

제가 4년 동안 경희대학교를 다니면서 소위 원픽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시와 예술철학’입니다. 이 수업은 예술철학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바탕으로 현대시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과목인데, 단순히 시를 감상하는 차원을 넘어, 시의 본질과 기능, 흐름, 양상, 나아가 시 창작까지 폭넓게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아, 이게 진짜 대학 수업이구나”였어요. 근대성과 예술, 문학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면서 시가 단순히 언어의 장르가 아니라, 시대를 사유하고 인간 존재를 반추하는 예술이라는 점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교수님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셔서, 수업 시간 자체가 하나의 지적인 몰입의 경험이었어요. 물론 실용적이고 실무 경험에 도움이 되는 여러 수업이 있었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국문학의 ‘학문적 깊이’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과 철학, 사회를 함께 사유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꼭 추천하고 싶은 과목입니다.

[전공 관련 활동]

Q 전공과 관련하여 참여한 활동(동아리, 공모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저는 학생회, 출판학회 ‘눈길’, 중앙동아리 ‘그림자놀이’ 등의 활동을 재학기간동안 했습니다. 출판학회 ‘눈길’에서는 한 학기 동안 한 편의 소설을 완성하는 창작 활동을 했고, 학회원 친구들과 서로의 작품을 읽고 깊이 있는 피드백을 주고 받았습니다. 학회원들의 작품이 모여 하나의 소설집으로 출판되었고, 실제로 독자에게 전달되는 경험은 매우 뜻깊었습니다.

또 영화 제작 동아리 ‘그림자놀이’ 활동을 하면서는, 직접 시나리오를 집필하고 연출하며 어쨌든 그랬음. 이때 국문학과에서 배운 스토리텔링 기술과 구조적 서사 이해가 시나리오 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쓴 이야기가 영상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통해, 문학이 다른 예술 장르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몸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Q 해당 전공과 관련한 경험 중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창작 공모전에 도전해보는 경험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글을 단지 ‘과제로 제출하는 것’에서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상상하며 쓰는 경험은 글쓰기의 시야를 훨씬 넓혀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창작은 단순히 시나 소설뿐만 아니라 비평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해석을 하나의 논리적 글쓰기 결과물로 만들어 외부에 내보내는 과정을 통해

문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비평을 더 좋아해서 자주 시도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수상 여부를 떠나, 자신의 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다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글을 외부에 제출하고 피드백을 받는 경험은 작가적 감각뿐 아니라 비평에 대한 감수성, 책임감 있는 글쓰기 태도를 기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글을 써보는 일은 국문학 전공자에게 가장 본질적인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Q 내가 선택한 전공은 어떤 학생에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하나요?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한 마디]

물론 한국 문학, 한국어학,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텍스트를 통해 세상을 깊이 들여다보고 해석하려는 태도를 가진 학생에게 정말 잘 맞는 전공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전술한 것처럼 국어국문학은 흔히 말하는 '감성'의 학문이 아니라 '논리'의 학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성과 비판적 시각, 그리고 꼼꼼하게 읽어내는 힘을 얻고 싶은 학생이라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고, 사유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라면 더욱 잘 맞을 것 같습니다. 한 편의 문장을 오래 붙잡고 고민하는 걸 마다하지 않는 사람, 글과 사회의 관계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국어국문학과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깊게 와닿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 23학번 문서영

재학생 이야기

[전공 소개]

영어영문학과는 영어와 영어권 문학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적 탐구를 통해, 학생들이 언어 능력은 물론 문화적 소양까지 함께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크게 영어학과 영문학 두 영역으로 나뉘며, 영어학 분야에서는 영어의 음성, 음운, 어휘, 의미 등 언어 구조를 과학적이고 언어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대표적인 강의에는 '영어통사구조의 이해', '영어음성음운론', '심리언어학 이해' 등이 있습니다.

한편 영문학 분야에는 영어권 문학 작품을 바탕으로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맥락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셰익스피어', '영미희곡', '비평이론' 등 다양한 과목을 통해 문학적 상상력과 분석 능력을 함양합니다.

[전공 선택 계기]

어릴 때부터 한글보다는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영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그 언어가 가진 다양한 표현 방식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영어로 된 문학 작품이나 문화적 배경을 접하면서, 언어의 깊이를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본격적으로 학문을 공부한다면 언어와 문학을 통해 세상을 보는 관점이 확장될 것 같아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어머니였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인 저는 취업을 고려하며 이과 혹은 경영학과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도중에, 어머니께서는 "너가 진정으로 열정을 느끼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 가장 큰 성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제가 좋아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학문적인 선택을 넘어,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싶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었고, 제 직관을 믿고 영어영문학과로 진학하는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진정한 관심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인의 기대 충족 혹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선택하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전공 선택은 단순히 학문적인 결정이 아니라, 나의 미래에 대한 방향성에도 연결된 중요한 과정이므로, 나의 가치관과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지를 함께 고려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전공 공부의 현실]

전공을 선택하기 전, 저는 영어영문학과에 대해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학 작품을 깊이 있게 읽으며 그 속에 담긴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탐구하고, 영어 실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Q 간단히 본인의 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이 전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Q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조언은 무엇이었고, 누가 해주었나요?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Q 전공 선택 전후로 기대했던 점과 실제 느낀 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하지만 실제로 전공 수업을 들으며 느낀 점은 생각보다 훨씬 '학문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것과 영문학을 연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영문학은 언어 실력뿐 아니라 텍스트를 분석하고 시대적 맥락과 철학적 관점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점차 그 깊이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세이나 토론 중심의 수업을 통해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관점을 갖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역량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는 제가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고, 지금은 오히려 이 점이 제 전공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Q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요즘 문과 계열, 특히 인문학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현실 앞에서 고민이 없었다면 거짓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흐름 속에서도 영어영문학과를 선택한 건 단순히 영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언어를 통해 인간과 사회, 사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전공 수업을 듣다 보면 단순한 문학 작품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거나, 그 속에 담긴 사회적 맥락과 철학적 사상을 함께 탐구합니다. 작품을 읽기 전에 작가의 생애와 시대 배경을 살펴보고, 이후에는 친구들과 느낀 점과 해석을 나누며 내가 놓친 지점을 누군가가 새로운 시각으로 발견하는 과정에서 인문학적인 사고가 자라나는 걸 느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에 제가 이 전공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Q 전공에서 추천하고 싶은 과목이 있다면?

제가 전공 수업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과목은 박해일 교수의 '심리언어학 이해'입니다. 이번 학기에 수강하고 있는 강의 중 가장 흥미롭게 듣고 있는 수업이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 뇌과학을 전공하신 덕분에, 언어학적인 주제를 뇌의 구조와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내 주셔서 수업 외적인 배움도 많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내용은 브로카 실어증과 베르니케 실어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전두엽의 브로카 영역이 손상된 환자는 문장에서 기능어(function word)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된 경우에는 언어는 유창하지만 의미 전달이 어렵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교수님께서 시청각 자료와 다양한 실생활 사례를 활용해 설명해 주셔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주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꼭 추천하고 싶은 과목입니다.

[전공 관련 활동]

Q 해당 전공과 관련한 경험 중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영어영문학과에서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경험은 하계와 동계에 진행되는 해외 전공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하계에는 미네소타, 동계에는 보스턴에서 약 한 달간 머무르며 미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영어로 소통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언어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환율 등의 부담으로 쉽게 가기 어려운 미국에 학과의 지원을 받아 한 달간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은, 영문과 학생만이 누릴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한 마디]

Q 내가 선택한 전공은 어떤 학생에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하나요?

기본적으로 영어와 문학 작품을 잘 알고 좋아한다면 잘 맞을거라 생각합니다. 학과 특성상 원어로 된 작품을 많이 접하므로 시험 혹은 과제를 할 때, 에세이나 리포트에서 본인의 생각을 영어로 잘 서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글을 잘 쓰고,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표현하는 데 자신이 있는 학생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당연히 요구되지만, 영어영문학과에 와서도 영어 실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영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흥미를 느끼고 노력한다면 영문과에 잘 적응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교수님들 또한, 영어를 잘 하지 못해도 부족한 영어 실력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과대학

응용영어통번역학과

| 21학번 정연우

재학생
이야기

[전공 소개]

응용영어통번역학과는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통번역 능력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영어 활용 능력을 기르는 학과예요. 고급 문법, 작문, 말하기, 듣기 등 전반적인 영어 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요. 통역 훈련으로는 실시간 말하기 연습, 순차통역, 동시통역 기초가 있고 번역 훈련으로는 문학, 신문, 경제, 비즈니스, 기술 문서 등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를 번역하는 연습을 해요.

[전공 선택 계기]

고등학교에서 영자신문 동아리를 하고 또 문학 번역에 관심이 생겼어서 이런 실용적인 분야에 잘 맞는, 제게 매우 흥미로운 전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됐어요.

“내가 좋아하고 오래 해도 질리지 않을 일을 선택해라.”

아빠가 해주 조언이에요. 이 조언은 단순히 '성적에 맞춰서',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고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고 꾸준히 파고들 수 있는 분야를 고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전공은 대학에서의 4년뿐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의 방향까지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흥미와 적성이라고 생각해요.

전공은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생각해보는 첫걸음인 만큼, 적성과 흥미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 같아요. 아무리 전망이 좋고 안정적인 전공이라도, 내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즐기지 못한다면 그 분야에서 오래 버티기 어렵고 성취감도 낮을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꾸준히 노력할 수 있고, 결국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전공 공부의 현실]

원어민 교수님 수업, 통번역 훈련을 통해 영어가 자연스럽게 향상될 거라고 기대했었어요. 한마디로, 영어 실력이 빠르게 늘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이는 개인적인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영어 실력은 꾸준한 자기 노력이 필수고 수업만 듣는다고 자동으로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니며, 개인적인 반복 연습과 꾸준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통번역 훈련은 생각보다 고난도인데, 이는 단순한 영어 실력이 아닌, 빠른 사고력, 정확한 문장 구성, 문화적 맥락 이해 등 복합 능력이 필요한 것이예요.

신입생 때 긴장되던 회화도 학년이 점차 높아지면서 자신감이 붙고, 외국인 친구나 교수님과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내가 정말 성장했구나”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교양 과제나 프로젝트에서 제가 번역한 글이 발표 자료나 영상 자막으로 쓰일 때, “내가 배운 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하는 뿌듯함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Q 간단히 본인의 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이 전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Q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조언은 무엇이고, 누가 해주었나요?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Q 전공 선택 전후로 기대했던 점과 실제 느낀 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Q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Q 전공에서 추천하고 싶은 교과목이 있다면?

최지안 교수님의 문학 번역이예요. 이 과목은 영미 문학의 정수라 할 수 있는 훌륭한 작품들을 소재로 삼아요. 문학과 문화의 배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유를 할 수 있고 문학 번역에 있어서 교수님의 알찬 피드백과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요.

[전공 관련 활동]

Q 전공과 관련하여 참여한 활동(동아리, 공모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저는 인권 동아리 한 곳만 하는 중이라,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는 하지 않아서 참여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 한 곳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개설한 동아리로 “트랜즐”이라는 곳이에요. Traensl.은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응용영어통번역학과 소속 바이링구얼 웹매거진 동아리로,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통해 언어, 사회, 문화, 과학의 네 가지 분야의 이슈를 다룹니다!

Q 해당 전공과 관련한 경험 중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학과에서 여름에 해외전공연수를 갈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강력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작년 여름에 보스턴을 다녀왔는데, 보스턴 칼리지에서 전공 관련 교육을 받고 친구들과 사내를 놀러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매우 좋았어요!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한 마디]

Q 내가 선택한 전공은 어떤 학생에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하나요?

저는 크게 네 가지 부류의 유형을 생각해봤는데요.

1. 영어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가진 학생

단순히 성적이 좋은 것보다, 영어를 즐기고 꾸준히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학생이 더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2. 사람과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

통역과 번역은 단순한 언어 작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기 때문에 소통에 관심 있고 타인의 말을 잘 이해하려는 자세가 중요해요.

3.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의 학생

특히 번역은 작은 뉘앙스 하나가 전체 문장의 의미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집중력과 정확성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4. 다양한 문화와 세계에 열린 시각을 가진 학생

영어를 배우는 것은 곧 다른 문화, 사고방식, 가치관을 이해하려는 과정이에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학생이라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정리하자면, 영어를 ‘시험 과목’이 아닌 ‘소통 도구’로 여기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학생에게 이 전공은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요.



문과대학
사학과

22학번 최준영



[전공 소개]

Q 간단히 본인의 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이 전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사학과는 크게 고고학, 동양사, 서양사, 한국사 분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고고학 분과에서는 선사고고학과, 철기시대부터 발해까지의 시대를 다루는 역사고고학, 그리고 유라시아 초원 지대에서 활동했던 유목 민족들에 대해 배우는 동아시아 고고학 등을 공부합니다. 동양사 분과에서는 중세사, 근세사, 현대사와 같은 시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특강 수업들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서양사분과에서도 동양사와 마찬가지로 고중세사, 근대사, 현대사와 같은 시대사를 배울 수 있으며, 도시사나 미국의 전반적인 역사를 배우는 아메리카사 수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사 분과에서는 고대사, 조선시대사, 근현대사 수업이 개설되어 있으며, 다른 학교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사상사 수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질병사와 같은 주제사도 배울 수 있습니다.

[전공 선택 계기]

Q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와는 다른 세계의 여러 문화들을 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들을 찾아서 보기도 하고 외국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 참여해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역사라는 과목 자체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고 생겼습니다. 역사의 이러한 점들에 큰 매력을 느껴 사학과로 진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조언은 무엇이었고, 누가 해주었나요?

사실 저는 사학과에 가겠다고 결정했을 때, 선배들이나 선생님들의 조언을 따로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학과로 진학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다른 학교에서 다른 전공을 선택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했던 전공이 아니었고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적성에 너무 맞지 않아 중간에 그만 두었습니다.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사학을 전공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후에는 오로지 앞만 바라보았었고 외적인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다행히도 제 가족들은 저의 꿈을 지지해주었고 이렇게 사학과에 진학을 하여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내가 정말 원해서 하고 싶은 일인지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저는 원하지 않던 전공을 선택해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크게 흔들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공 공부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있게 이어지기 때문에, 흥미와 열의가 없다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해야 중간에 시련이 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내가 진심으로 원해서 선택한 것인지'가 전공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전공 공부의 현실]

Q 전공 선택 전후로 기대했던 점과 실제 느낀 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우는 역사는 여러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암기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대학교에서 배우는 사학은 단순히 사실 관계를 아는 것을 넘어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사학과에 입학하는 새내기들은 고등학교에서 접했던 역사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수업과 과제 때문에 당황하곤 합니다. 그러나 수업의 흐름을 잘 따라가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과제를 통해 이를 논리적으로 전개해나가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사과의 깊이가 확실히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Q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세계 정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때 전공 선택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무기를 들고 싸우게 되었는지,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차지하려고 하는지를 역사를 공부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역사서를 읽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민들을 이미 선조들이 겪었고, 그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과거를 살펴봄으로써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사학이 가지는 큰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저는 사학과를 선택한 것을 절대 후회되지 않습니다.

Q 전공에서 추천하고 싶은 교과목이 있다면?

저희 학과 교수님들께서는 모두 학생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열정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수업이 훌륭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추천하고 싶은 수업은 '한국근현대사'입니다. 이 수업의 가장 큰 매력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한국사를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갑신정변을 배울 때 우리는 보통 이를 급진개화파 세력이 조선의 빠른 개화를 위해 일으킨 사건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수업에서는 '급진개화파를 친일파로 볼 수 있을까?'와 같은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할 수 있게 만듭니다. 저는 이러한 수업방식이 인상 깊었기 때문에 '한국근현대사' 수업을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공 관련 활동]

Q 전공과 관련하여 참여한 활동(동아리, 공모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올해 여름에 전공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매년 여름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으로, 겨울에는 대만의 가오슝 대학교나 일본의 돗토리 대학 등 동아시아 문화권으로 전공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 배운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과 이를 통해 느낀 생각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다는 점에서, 전공연수 프로그램은 사학과 학우들에게 매우 의미가 큰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공연수 프로그램을 경험했던 학우들도 꼭 한 번은 참여해야 하는 활동이라며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번 전공연수 프로그램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Q 해당 전공과 관련한 경험 중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제가 직접 참여해보지는 않았지만, 박물관 인턴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중앙도서관 4층에 위치한 박물관에서 정기적으로 학부생 인턴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저희 학과 학우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다양한 기획 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매주 열리는 세미나를 통해 업무에 필요한 여러 지식을 배우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준학예사 시험 준비를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박물관 관련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우분들이라면, 이 인턴 프로그램에 꼭 한 번 참여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Q 내가 선택한 전공은 어떤 학생에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하나요?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한 마디]

사학과에 오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선행조건은 없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 학우라면 누구에게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저희 학과에 오게 되면 예상보다 과제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을 기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올해로 4학년이 된 저 역시 여전히 글을 쓰는 일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끈기와 의지만 있다면, 분명 사학과에서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지닌 분들이라면 저희 사학과에 꼭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문과대학 철학과

재학생
이야기

21학번 김지환

Q 간단히 본인의 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이 전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전공 소개]

철학이란 인간의 지성이 닿는 모든 것, 즉 인간과 세계에 관해 사유하는 학문입니다. 윤리, 정치, 사회, 인식, 논리, 언어 등이 철학이 주제로 삼는 대표적인 대상들이며, 그 외에 철학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무수히 많습니다. 한때 철학이 '학문' 자체와 같은 의미로 쓰이던 시절도 있었던 만큼, 철학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학문의 중심이었습니다. 수많은 하위 분과가 독립해 나간 현재에 이르러서도 철학은 이토록 학제적 이면서 자기만의 방법론을 모색한 채로 다양한 물음을 스스로 던지고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보통 철학은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처럼 지역별로, 또는 윤리학/정치철학/형이상학/논리학 등과 같이 주제별로 분과를 구분합니다. 경희대학교 철학과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철학 개론과 더불어, 윤리학이나 논리학 수업처럼 특정 분야에 집중한 수업들 역시 병행됩니다. 각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하는 세계적인 교수님들이 계시는 만큼, 철학과에서는 철학 각 분과에 관한 이해를 얻음은 물론 인간이 어떻게 지성을 발휘하여 자신과 세계를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해왔는지를 스스로 탐구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전공 선택 계기]

Q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학 시절 학교 도서관에서 여러 장르의 책을 읽기를 일과로 했던 저는, 우연히 평소 좋아하던 작가의 철학사 입문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어떤 깨달음 때문이 아니라, 그저 글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했던 최초의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오기로라도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저는 그 책을 관련 자료를 찾아가면서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다른 철학서도 접하며 이 학문에 점점 관심을 늘려 가게 되었습니다.

철학은 세계 사실과 가치, 당위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스스로 어떤 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공부를 거듭하면서 인간과 세계의 조형이 서서히 눈앞에 드러날수록 저는 그 모든 과정에 매료되었습니다. 2년여간의 독학을 이어간 끝에 저는 철학을 업으로 삼고자 결심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 마음가짐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조언은 무엇이었고, 누가 해주었나요?

전공을 결정할 때 누군가의 조언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철학과 진학을 선언했을 때 반대의 목소리가 훨씬 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는 학과의 졸업 이후 장래성과 실용성에 관한 것이었고, 애초에 제가 철학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것들과는 무관했기에 제게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영향을 준 조언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기에 이 선택은 제게 더 의미 있는 결정이 되었고 전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대학에서의 전공이 꼭 인생 전체의 진로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분야의 졸업장을 가졌느냐보다도 대학에 몸담은 기간 동안 자신의 전공으로부터 무엇을 얻어가느냐입니다.

자신이 구체적인 진로를 명확히 설정한 상태라면 전공 선택에 있어서 망설임이 좀처럼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 중 일부는 단순 흥미 본위로 전공을 선택하고는 합니다. 특히 철학과와 같은 경우, 고등학교

Q 전공 선택 전후로 기대했던 점과 실제 느낀 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Q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Q 전공에서 추천하고 싶은 교과목이 있다면?

[전공 공부의 현실]

철학과에서는 책 읽고 글 쓰며 서로 토론하는 일이 거의 모든 활동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진학 이전에 가졌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이 점에는 큰 만족감을 느끼며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언어였습니다. 철학은 고전이든 현대 이론이든 핵심적인 텍스트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원전을 읽지 않더라도, 오늘날의 철학 논문 역시 많은 것이 영어로 발표되고 있죠. 이 때문에 공부하는 데 있어 번역의 어려움이나 고충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 학문을 전공함이 기쁘고 스스로에 자랑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로 쓸 말이 없네요.

경희대학교 철학과에서는 정치철학, 윤리학, 종교철학 등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세부 분과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철학을 공부하든지 간에, 한 가지 분과의 기초적 내용은 반드시 숙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논리학입니다.

철학은 현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컨대 실험과학처럼 현실의 데이터로 쌓아가는 학문이 아닙니다. 오로지 말과 글만으로, 자신의 생각을 합리적이고 명증하게 전달해야 하죠. 전제를 설정하고 그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일련의 과정은 엄밀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의 사유가 온전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철학과에서는 '논리와 사고'와 '논리학' 강의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주장이 체계적으로 정초되어 있는지, 그럴듯한 비약으로 눈속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개진하여야 하는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전공 관련 활동]

Q 전공과 관련하여 참여한 활동(동아리, 공모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경희대학교 철학과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학술 모임인 학회가 여럿 있습니다. 다양한 철학적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학회들에서는, 비슷한 학문적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철학 텍스트를 읽고 토론합니다. 학회는 활발하게 생겨나기도 사라지기도 하며, 2025년 1학기에는 분석철학회, 법철학회, 서양철학사학회, 정치철학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저는 입학 이래로 경희대학교 철학과에 개설되었던 학회의 대부분을 경험해 보았는데, 선배들과의 교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학우들과 토론하며 자신의 생각을 구성해갈 수도 있는 매우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Q 해당 전공과 관련한 경험 중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철학과 수업에서는 주로 글쓰기를 통해 사고를 정리하고 표현하는 과제가 많습니다. 특별한 양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 글쓰기 과제를 단순히 과제로 끝내지 않고, 실제 논문처럼 구성과 표현, 참고문헌 양식까지 엄밀하게 맞추어 작성해왔습니다. 꼭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저 작문을 적당히 때우기보다는 최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 반박하며 글을 쓰다 보면 단지 자신의 생각을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하고 타당하게 뒷받침하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기르게 됩니다.

철학은 결국 '잘 말하고 잘 쓰는' 학문이기에, 자신만의 글쓰기 방식을 확립하는 경험은 매우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한 마디]

Q 내가 선택한 전공은 어떤 학생에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하나요?

철학과에서는 거의 모든 공부가 언어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텍스트를 읽고 그것을 해석함은 물론이고, 그 함의를 통찰하며 내 생각을 텍스트로 작성하고 다른 사람과 논쟁하지요. 그렇기에 문해력이나 작문 능력 등과 같이 언어적 능력이 중요한 학과라고 여겨집니다. 반드시 처음부터 뛰어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텍스트를 다루거나 토론과 토의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 거부감이 없는 학생이 잘 맞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는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비단 대학 생활에 있어서만이 아니라도,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있어서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 자체에 흥미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자신이 아직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양한 분야의 학문의 기반이 되는 철학을 공부하며 자신의 지적 영역을 확장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 21학번 박소명



[전공 소개]

정치외교학과에서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배웁니다. 특정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사상, 그리고 이를 해석하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관점을 학습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제’와 ‘국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부터 특정 지역에 대한 미시적 차원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해석이 이루어지며, 편향된 시각이 아닌 다각도로 현상을 이해하도록 학습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스스로 사회과학적 가설을 세우고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당연하게 여겨지던 현상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주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됩니다.

[전공 선택 계기]

국제관계, 특히 국제기구 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저는 이를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적으로만 비추어지는 ‘평화’와 ‘미래’에 대해,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상황은 어떠한지, 현실에서 국가 간 어떤 권력 관계와 갈등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그 배경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또한 저와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이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의견을 나누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 부기구와 같은 행위 주체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저만의 시각을 형성하고자 정치외교학과 진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선배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치외교학의 범위를 흔히 ‘정치’와 ‘외교’에만 한정된 시각을 갖기 쉬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보다 근거 있는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치외교학과의 의미가 학문 전반에 걸쳐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진로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하나의 사건을 폭넓게 사고해보자는 마음으로 정치외교학과 진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 본인만의 ‘오늘날 세계 속, 내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지역/국가가 무엇인지?’를 정립해보면서 정치외교학과 수업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분야가 설령 없더라도, 다양한 이슈를 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슈들을 접하며 해석까지 나아가지는 않더라도 본인이 어떤 분야에서 ‘더 탐구해보고 싶다’라는 흥미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수업을 듣는 것이 정치외교학과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전공 공부의 현실]

처음 전공을 선택했을 때는 ‘외교’ 분야, 특히 국제 관계에 대한 내용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치외교학과 수업에서는 비교정치와 국제정치 파트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비교정치 수업에서도 각 국가의 외교 전략을 다루기는 하지만, 국가의 내부와 외부 상

Q 간단히 본인의 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이 전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Q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조언은 무엇이었고, 누가 해주었나요?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Q 전공 선택 전후로 기대했던 점과 실제 느낀 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항 속에서 ‘그 국가의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정치적 목적과 전략을 중심으로 배우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뉴스 기사 하단의 댓글창을 보면서, 편향된 시각으로 미디어의 관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과 달리, 나만의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전공이 의미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특정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그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찾아본 뒤, 최종적으로 ‘나는 어떤 입장에 더 가까운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외교학과와 학습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전공에서 추천하고 싶은 교과목이 있다면?

저는 ‘정치학방법론’ 수업을 추천합니다. 현실의 정치 현상을 다루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회과학이라는 틀 안에서 모든 학문에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물음표를 던지는 방법’과 그 사례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정치 현상에 대해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때, 그 근거를 스스로 고민하고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전공 관련 활동]

Q 전공과 관련하여 참여한 활동(동아리, 공모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국제기구 관련 직종을 희망하다 보니 대외활동에 많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로 소개하고 싶은 활동은 ‘SDSN Youth Korea’입니다. 이 활동은 국제사회 전반의 이슈를 지식 차원에서 다루는 동시에, 청년들이 실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했습니다. 특히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해 전문적으로 학습하며, 양질의 활동을 수행해볼 수 있었기에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적극 추천할 만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해당 전공과 관련한 경험 중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전공과 관련하여 다양한 공모전이나, 마음이 맞는 학우들과 함께 토론타회에 참여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순히 입장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특정 주제에 대해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타인의 정제된 관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식견을 넓히기에 매우 유익한 활동입니다. 규모 면에서는 국가 단위의 토론타회, 즉 지도교수가 함께하며 장기간에 걸쳐 준비하는 대회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정치외교학과 교수님들께서 토론타회 준비 과정에서 양질의 피드백과 시각을 제공해주시기 때문에, 정치외교학과에서 의미 있는 배움을 얻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특히 권하고 싶은 활동입니다.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한 마디]

Q 내가 선택한 전공은 어떤 학생에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하나요?

정치외교학과는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개하기보다, 타인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줄 아는 학생에게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학 분야의 특성상 하나의 현상에 대해 정해진 답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거나, 상대의 주장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성찰이 부족하다면, 전공적합성은 물론 학업 성취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상대의 의견을 열린 태도로 수용하면서도, 2)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학생에게 정치외교학과가 잘 맞는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경대학 행정학과

| 23학번 이현정



[전공 소개]

행정학은 공공부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조직 운영의 원리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지, 또 이를 위해 어떤 제도와 조직을 활용하는지를 배우게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정책학, 행정조직론, 인사행정학, 재무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게 됩니다. 행정학은 단순히 “공무원이 되기 위한 학문”이라기보다는 공공부문에 대한 것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법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전공 선택 계기]

사실 저는 처음부터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학을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첫 대학에서는 국어국문학을 전공했었고, 이후 다시 수능에 도전할 때는 그저 “사회과학 계열의 전공을 갖고 싶다”는 생각으로 행정학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행정학과를 택한 데에는 부모님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부모님 두 분 모두 공무원이시고 학교에 근무하셔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육행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자랐거든요. 예를 들어 저녁 식탁에서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업을 진행 중인지”, “교육청에서 어떤 공문이 내려왔는지” 같은 이야기를 자주 나누셨고, 그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제게는 꽤 익숙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부모님은 늘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저도 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그 대화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가끔은 저도 한두 마디 의견을 덧붙이기도 하고요.

Q 간단히 본인의 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이 전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Q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조언은 무엇이었고, 누가 해주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반수를 통해 현재의 전공과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 결심을 하게 된 데에는 전적대 시절 담당 교수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였고, 우연히 교수님과 진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진로 계획을 들으신 교수님께서도 오히려 학교와 전공을 옮기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조언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쉽지 않은 말씀을 해주신 거였다고 느껴요. 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상담 역시 그 방향에 맞춰 흘러갔습니다. 교수님은 제 고민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법학이나 행정학 등 법학을 배울 수 있는 학과로 전과하거나 재도전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어린 나이이니 충분히 다시 도전해도 된다. 수능을 준비해서 로스쿨이 있는 학교로 옮겨보라”는 격려도 덧붙여주셨어요. 상담이 끝나자마자, 저는 바로 서울에 있는 여러 대학들의 법학과와 행정학과 홈페이지를 찾아다니며 교육과정을 살펴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국 몇 번의 도전 끝에 반수에 성공했고, 자퇴 허락을 부탁드리는 메일을 보냈을 때 교수님께서 바로 전화를 주셔서 “정말 축하한다”고 해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감사하고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교수님을 저의 진로에 가장 결정적인 조언을 주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우리가 흔히 묻는 “잘하는 것과 재밌는 것 중 어떤 걸 골라야 하나요?”라는 질문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늘 ‘잘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길 권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공을 확정짓기 전에 전공 기초과목 1~2개 정도를 먼저 수강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과제나 시험에서 다른 수강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이 너무 고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전공 분야에서 내가 독창적인 생각을 하거나, 적어도 남들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 최소 3년 이상은 그 학문을 깊이 있게 탐구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선,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공 과목에서 높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흥미롭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내가 이 분야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는 공부하면서 차차 생기기도 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오히려 그 분야에 대한 애정을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결국 전공 선택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판단하고, 스스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공 공부의 현실]

Q 전공 선택 전후로 기대했던 점과 실제 느낀 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행정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이론 중심의 학문일 거라 막연히 생각했지만, 실제로 공부해보니 단순히 행정학 자체만 이해해서는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많은 행정학과 교수님들께서도 자주 강조하시는데, 행정학은 “다양한 학문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을 설계할 때는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해야 하니 경제학적 사고가 필요하고,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려면 설문조사와 통계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학적 지식도 요구돼요. 상황에 따라선 경영학의 기법을 활용하기도 하고, 법률적 해석이나 사회학적 관점도 중요해지곤 합니다.

처음에는 행정학이라는 하나의 학문만 잘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폭넓은 지식을 요구하는 융합적 학문이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었죠. 물론 이 점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동시에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차이를 경험하면서, 행정학을 공부하려는 학생이라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중심에 두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학문을 받아들이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야만 행정학의 복합적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거든요. 결국, 한 학문을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분야의 지식만을 쌓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사고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Q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제가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은 올해 2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새내기새로배움터에 참여했을 때였어요. 행사 중에 학과장 교수님을 뵈었는데, 저를 보시고는 “현정아, 그래 잘하고 있어. 너는 지금 행정을 실전 중인 거야. 조금 많이 힘들어도 배우는 건 많지?”라고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때 정말 놀랐어요. 제가 지난 2년간 학생회장장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교수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신 느낌이었거든요. 실제로 학생회를 이끌면서 크고 작은 갈등 상황을 조정하거나, 구성원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러다보니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오히려 학생회 활동 속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걸 종종 느끼게 됐어요. “이거 완전 지금 우리 학생회 상황인데?” 싶은 수업 내용이 나올 때면, 내가 지금 배우는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몸소 체험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가끔은 행정학 이론을 적용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려고도 하고, 과제나 공부 중에 접하는 사례들을 읽으며 우리 학생회에 적용해볼만한 것들도 찾아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끼게 해준 큰 이유는 사람들이었어요. 행정학과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 정도는 아니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낮을 가리거나 조용한 친구도 있고 활

발한 친구도 있지만, 다들 따뜻하고 정이 많아서 수업이나 대외활동, 공모전 등에서 마주치면 정말 반갑고 기분이 좋아요. 저는 학과에 애정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사람들덕분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공부하고 활동하면서 쌓인 관계들이, 제 전공생활을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Q 전공에서 추천하고 싶은 교과목이 있다면?

행정학의 정식 같은 과목을 추천드려야할지, 아니면 타 전공생도 쉽게 접근 가능하고, “이런 것도 행정학과에서 배운다고?” 싶을 만한 흥미로운 과목을 추천드려야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저는 후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과목은 김광구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갈등관리와협력”입니다. 행정학과에서 배운다고?” 싶을 만한 흥미로운 과목을 추천드려야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저는 후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과목은 김광구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갈등관리와협력”입니다. 행정학과에서 배운다고?” 싶을 만한 흥미로운 과목을 추천드려야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저는 후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보고 싶습니다.

이번 학기에 저도 직접 수강하고 있는데, 정치외교학과처럼 다른 전공을 가진 학생들도 많이 듣고 있어서 전공에 상관없이 충분히 접근 가능한 강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쯤 들어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전공 관련 활동]

Q 전공과 관련하여 참여한 활동(동아리, 공모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저는 과동아리와 과학생회 활동을 주로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행정사레연구동아리와 학생회 활동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선 행정학과 과동아리인 행정사레연구동아리(PASS)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사회의 시사 이슈를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지는데요, 단순히 발표를 듣는 것을 넘어서 직접 주제를 정하고 조사해보는 경험이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건 학생회 활동입니다. 저는 학과 학생회장으로 학과 행사나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정학의 여러 이론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을 관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행정학에서 배운 “인사행정학”와 “정책학”을 실제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학생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으면서, 행정학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두 활동은 전공을 배우는 데 있어 중요한 경험이 되었고, 전공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며 배우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대학생활 중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학문적 성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Q 해당 전공과 관련한 경험 중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저는 행정사레연구동아리(PASS) 활동에 참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동아리에서는 매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들끼리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단순히 발표를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조사해서 직접 발제를 해보는 경험이 특히 의미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저는 “8호선 별내역 연장”을 주제로 발제를 해본 적이 있고, 또한 학기 단위 프로젝트로써 부동산 사기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의 여러 이슈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특히 행정학 전공 내용과도 종종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학문적 흥미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정책포럼 관련 공모전이나 대외활동에 참여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는 아직 직접 참여해 보진 못했지만, 주변 동기들이 다양한 공모전이나 외부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긍정적인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공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고, 최종적으로는 발표까지 해야 하다 보니 의사소통 능력이나 발표 능력도 눈에 띄게 성장하더라고요.

공부는 단지 강의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과 맞닿을 때 훨씬 더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가이드북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대학 생활 중에 전공과 관련된 공모전이나 대외활동에 한 번쯤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한 마디]

Q 내가 선택한 전공은 어떤 학생에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하나요?

우선 저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해결에 기여하고 싶은 학생”에게 이 전공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행정학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교육격차, 주거 문제, 지역 불균형, 갈등 조정 등)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학문입니다. 공공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전체 과정을 배운다는 점에서,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잘 맞을 것 같아요.

또한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융합적 사고를 좋아하는 학생”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행정학은 하나의 학문으로만 설명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해요. 실제로 전공 수업에서도 정치학, 경제학, 통계학, 법학, 심지어 경영학자의 이론까지 함께 다루곤 해요. 그래서 두루두루 배우며 사고의 폭을 넓히고 싶은 학생, 여러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데 흥미를 느끼는 학생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어요.



정경대학 사회학과

| 24학번 신중혁

재학생
이야기

[전공 소개]

사회학은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익히며, 사회를 통찰하는 시각을 키우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회 현상을 학자들의 이론과 다양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해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토론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학문으로서의 영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1학년 전공기초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사회학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들)의 삶과 행위, 그리고 인간을 둘러싼 문화, 구조, 조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배우는 내용은 크게 이론적인 부분과 연구 방법론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학 이론>, <사회학 강독>, <대학과 사회>, <문화 사회학> 등의 수업에서는 사회학의 이론적인 부분과 다양한 하위 분야의 사회학에 대해 배우게 되고, <사회연구입문>, <질적연구방법론>, <사회통계학> 등의 수업에서는 그동안 배운 사회학적 지식과 이론에 본인의 흥미를 더해 주제를 선정하고 직접 질적 연구를 진행하거나 통계적 처리 방법을 배워 양적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전공 선택 계기]

저는 일반고 학생이었는데, 교내에 사회중점반이라고 사회과학/문과계열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독서 모임, 다양한 시사 토론회, 뉴스와 커뮤니케이션 교실, 학술제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진로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다 보니 사회 전반의 이슈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3학년을 준비하던 겨울방학에 이때까지 활동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어느 학과를 지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다양한 사회 현상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학문이라는 사회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뚜렷한 진로가 없던 점도 고려했지만,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해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생겨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내 선생님들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번 모의 면접도 진행하고, 생활기록부 컨설팅도 받으면서 조언을 많이 들었는데, 취업 등 현실적인 부분보다도 결국 그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건 스스로이기 때문에 “너가 가서 흥미를 가지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지”를 잘 고민해보라고 하셨던 말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앞선 답변과 비슷합니다. 저는 본인이 정말 흥미가 있고, 재밌게 공부할 의지가 있는 학문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와서 전공 공부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어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동기들을 꽤 봤습니다. 대학에서의 공부는 강제성이 없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학습하려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궁금증과 의문을 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학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 및 진로에도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Q 간단히 본인의 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이 전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Q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조언은 무엇이었고, 누가 해주었나요?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정말 본인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가장 먼저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전공 공부가 재미가 없다면, 그때 가서 전과나 복전 같은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전공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나에게 얼마나 적합할지를 객관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공 공부의 현실]

Q 전공 선택 전후로 기대했던 점과 실제 느낀 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과 해석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제 시각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1학년 전공기초 수업에서 교수님이 특정 사회 현안을 쟁점으로 던져주시고 자유롭게 학생들이 발언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주셨는데, 다양한 학우들의 생각을 듣고 교수님께서 조금씩 덧붙여주시면서 어느 정도는 전문적이고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학 전에는 사회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추구)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다소 당위적인 성격이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규범적인 것을 떠나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대안을 제시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전공 수업이 뭔가 교양 수업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는데요. 워낙 다양한 사회 현상을 다루기도 하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과목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답을 사회학 이론과 해석을 통해 제시해야 하는 과목이라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체감이 잘 안 되는 수업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과 해석을 이해함으로써 시각을 넓히는 데는 도움이 되는 전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1학년 전공기초로서 1학기에 <사회학에의 초대> 수업에서 사회학의 느낌을 익히고, 2학기에 <사회학 이론> 수업을 통해 학문적 역량을 키운 뒤 2학년부더 다양한 하위 분야의 전공 선택 과목을 듣는 과목 체계가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전공선택으로 사회심리학, 대학과 사회 과목을 듣고 있는데 확실히 1학년 때보다 전문적이고 의미 있는 학습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쉽게 말해서 배우는 게 많고, 공부해야 할 것도 많아졌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과목은 1학년 전공기초 <사회연구입문> 과목이었습니다. 사회연구의 기초를 배운 뒤 조별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해서 질적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발표하는 과목이었는데요. 저희는 「대학생의 자아정체성이 유행 상품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직접 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지를 통한 양적연구도 해보았고, 저희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를 모아 동조 실험을 진행한 뒤 심층 면접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수님과 몇 차례 면담을 거쳐 연구 방향을 수정해나갔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직접 연구 전략을 세워 실행해보는 과정이 즐거웠고, 예기치 않은 결과도 나름대로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학부 신입생 수준에서의 연구라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연구 과정이 결과와 상관없이 너무 즐거웠다는 부분에서 내가 사회학에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Q 전공에서 추천하고 싶은 교과목이 있다면?

아직 학부 2학년이라 많은 과목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전공 선택 중에서는 <대학과 사회> 과목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저자이신 사회학과 김종영 교수님께서 1학기에 개설하시는 과목입니다. 다소 급진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대학의 기원과 유럽 대학의 시초부터 시작해서 현재 한국의 대학병목체제를 학문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정말 경희대가 아니면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는 강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육 체제의 문제점에 관심이 있고, 도대체 대학이란 게 뭘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수강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물론 쉬운 과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배워가는 게 확실히 있는 과목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전공 관련 활동]

Q 전공과 관련하여 참여한 활동(동아리, 공모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저는 현재 경희대 사회학과 사회학회 '물결'의 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물결은 사회학 저서를 함께 읽고 발제를 통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문적 토론을 나누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학회지 발간 및 외부 학술제 참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공 시간만 가지고는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학문적인 이야기를 선

후배들과 나눌 시간이 부족한 학우분들이 모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학기 때 서울대학교에서 주최한 <2024 사회학과 연합학술제>에 동기들과 함께 발제자로 참여하여 「젠더 관점에서 바라본 중장년층 고독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동기 4명이서 참여하여 직접 전문가 인터뷰도 진행하고 나름 학술 연구를 통해 논문을 쓰고, 서울대 단상에 올라가 다른 학교 사회학과 선배님들 앞에서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해당 연합행사는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학과 학생자치연합위원회 SoQs가 올해부터 더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사회학도라면 학술제 경험은 한번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직접 연구 주제를 정해서 적합한 연구 방법을 계획하고, 연구를 수행하여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배운 이론이나 연구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깨닫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전공 수업에서의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꼭 직접 연구 과정에 참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한 마디]

질문에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학문이며, 선배님들의 진로 방향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회학만으로 무언가 하겠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면 사회학을 접목시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궁금증이 많은 학생에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런 현상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사회 문화적 맥락은 무엇인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등 사회 전반에 의문을 품고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학생들은 사회학에 큰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정경대학 경제학과

| 22학번 조 어 진

재학생
이야기

[전공 소개]

Q 간단히 본인의 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이 전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경제학은 사람들이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선택하고 배분하는지 배우는 학문입니다. 경제학은 인간의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는데,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부터 정부 정책까지 폭넓은 영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은 크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나뉘는데, 미시경제학에서는 소비자, 기업 등 개별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과 시장에서의 상호작용 등을 배우고, 거시경제학은 경제 성장, 실업, 물가, 금융 시스템 등 국가 전체의 경제 흐름을 분석하는 법을 배웁니다.

[전공 선택 계기]

Q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의 유명 펀드 창립자인 Ray Dalio의 'How the Economic Machine Works'라는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지만 경기변동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경제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관련 책을 찾아 읽으면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고,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경제학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조언은 무엇이었고, 누가 해주었나요?

가장 도움이 되었던 조언은 성인이 되어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흥미를 느끼는 일을 하라'는 그 조언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떤 전공이나 직업을 선택하든, 일정 수준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긴 시간의 노력과 그에 따른 고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 과정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경제학 공부가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 자체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견뎌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학에 흥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들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라면, 경제학 공부가 정말 지루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회 현상을 읽고 분석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경제학 전공이 매우 잘 맞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학과를 선택하시게 되면, 과목 특성상 수학을 자주 활용하게 됩니다. 수학을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학 자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학생이라면 공부를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수학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것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공 공부의 현실]

Q 전공 선택 전후로 기대했던 점과 실제 느낀 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경제학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본질을 다루는 학문이었습니다. 흔히들 경제학이라고 하면, 금융을 함께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공 선택 전에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금융 지식이나 투자 기법 등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수업에서는 추상적인 모델과 이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먼저 다루게 되었습니다.

Q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일상 속 사회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때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오르거나 금리가 변동하는 등, 경제뉴스 속 현상들을 과거에는 단편적인 정보로 받아들였다면, 지금은 특정 현상에 대한 원리 및 구조를 이해하고,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Q 전공에서 추천하고 싶은 교과목이 있다면?

고급거시경제학 수업을 추천합니다. 해당 수업은 학부 수준의 거시경제학을 한층 더 깊이 있게 탐구하고, 대학원 수준의 내용을 미리 접해볼 수 있는 수업입니다. 학부 2학년 때 배우는 기본적인 거시경제학 모델들을 수리적으로 증명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거시경제학 모델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전공 관련 활동]

Q 전공과 관련하여 참여한 활동(동아리, 공모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전공과 관련해서는 경제학회 활동을 했고, 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는 독서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경제학회에서는 학술제, 졸업생 강연 등 여러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Q 해당 전공과 관련한 경험 중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는 독서모임을 특히 추천하는데요, 해당 모임에서는 교수님께서 정해주신 책을 모임 구성원들이 각자 읽어오고, 책 내용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의 관점을 넓힐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한 마디]

Q 내가 선택한 전공은 어떤 학생에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하나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고 분석하는 학생들, 특히 이를 수리적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잘 맞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에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적합합니다. 경제학이라고 해서 단순히 금융 산업에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 경제학의 세부 연구 분야를 잘 찾아보시고, 본인의 관심사와 맞닿아 있는 분야가 있다면 경제학을 택하셔도 후회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정경대학 무역학과

| 24학번 한 지 민

재학생
이야기

[전공 소개]

Q 간단히 본인의 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이 전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무역학과에서는 전문적인 무역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이론부터 전문적인 이론까지 배웁니다. 특히 세계화가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지금, 세계의 경제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고 기본 및 심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전공입니다. 특히 무역 뿐만 아니라 경제, 경영 등 폭넓은 상경 계열의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전공 선택 계기]

Q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의 흐름을 읽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흐름을 전문적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도중 무역학과는 경제, 경영 등 다방면의 학업을 공부할 수 있다고 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상경 계열의 전공들 중 가장 폭넓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조언은 무엇이었으며, 누가 해주었나요?

부모님의 조언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상경 계열 과를 졸업하셨는데 고등학교 때 진로 고민을 하는 저에게 상경 계열로의 진학을 하게 되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물질적인 것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 저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자기 자신과의 적합성이 가장 중요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진로와는 다른 진로와 연계된 수업이 개설되어 있거나, 자신과 맞다고 생각한 과목의 수업을 수강할 때에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계속하여 흥미를 가지고 있었거나, 특정 과목을 배우는 것에 대한 흥미, 그리고 자신과 과목의 적합성을 통해서 전공을 선택한다면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공 공부의 현실]

Q 전공 선택 전후로 기대했던 점과 실제 느낀 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전공 선택 이전에는 무역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세계의 흐름을 읽는 수업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무역과 관련된 과목에서는 무역에 대한 이론 수업이 더 많았고, 특히 경제학, 경영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 수업의 비중이 기초 수업으로 개설되어 있어서 1-2학년은 조금 더 이론에 집중적인 수업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가며 전공 선택 과목들의 폭이 넓고 다양해서 기본 지식을 얻는 과정 또한 어렵지만 흥미로웠습니다.

Q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이전에는 경제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하여 경제 뉴스에 대한 거부감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뉴스를 보아도 이해할 수 있고, 제가 배웠던 내용이 등장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 전공 선택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자유로움이 생긴 20대 초반은 경제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Q 전공에서 추천하고 싶은 교과목이 있다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제의 기본적인 흐름을 알게 되어 지식이 쌓아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정말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전공 선택 과목 중 “회계원리” 과목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회계원리 수업에서는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로 배우게 되는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까지의 과정과 작성 시, 작성 후의 과정을 배우는 것이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경영학적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보면서 현 기업이 택해야 하는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의사결정권을 재무제표를 통해 고려할 수 있게 된다는 등의 흥미로운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기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전공 관련 활동]

Q 전공과 관련하여 참여한 활동(동아리, 공모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서울권 7개 대학의 상경계 학과의 연합된 국제, 경제학과 연합 학술제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 경제의 공통된 학습 영역이 있는 7개의 학과가 모인 학술제로써, 전자상거래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발표하는 소논문의 대회였습니다.

Q 해당 전공과 관련한 경험 중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위 문항에 적은 연합 학술제의 참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7개 학과는 ‘국제 경제’라는 공통된 학습 영역이 있었으나, 각 과마다 세분화되고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분야는 달랐기에 하나의 주제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본 하나의 주제의 여러 방면에 대한 토의를 동기들과 준비하고, 타 학과 학생분들의 발표를 들으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학술제라는 행사 특성 상, 고학년의 참여가 많아 깊은 내용의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한다는 경험이 정말 특별하고 유익하여 추천드립니다.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한 마디]

Q 내가 선택한 전공은 어떤 학생에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하나요?

경제학과 경영학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 세계의 흐름을 읽는 것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역학과에서는 경제, 경영, 회계 등 다양한 상경 계열의 수업을 폭넓고 세부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부입니다. 다각화된 전공수업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싶으신 분들에게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공기초 과목에서 쌓은 지식들을 통하여 세계의 경제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는 점은 추후의 여러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기에, 이러한 분야에 관심있는 분들께 적합한 학부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전공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고 세부적이고 심화된 전공 지식을 쌓을 수 있기에 추후 상경 계열 진로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경대학 미디어학과

재학생 이야기

19학번 이윤범

Q 간단히 본인의 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이 전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전공 소개]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적 분야를 융합적으로 배웁니다. 커뮤니케이션학은 흔히 “학문의 교차로”라고 불리는데요,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등 여러 사회과학 분야의 관점을 함께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 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저널리즘 분야에서는 저널리즘 개론, 보도사진론, 미디어 작문 등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글쓰기, 비판적 시각, 취재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둘째, 광고·PR 분야에서는 PR론이나 소비자 심리 같은 이론 수업뿐 아니라, 실제 광고 캠페인을 기획해보는 실습 중심의 강의도 함께 진행됩니다. 광고PR 세미나, 미디어 플래닝, 크리에이티브 전략 등 실무를 체험하며 배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셋째, 영상과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는 영상 커뮤니케이션, 스토리텔링, 대중문화와 문화산업을 이해하는 다양한 수업을 통해 영상 매체와 문화 현상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넷째, 휴먼커뮤니케이션 분야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영역으로, 설득 커뮤니케이션, 대인 커뮤니케이션, 정치 커뮤니케이션, 헬스 커뮤니케이션 등을 다룹니다.

다섯째, 미디어 애널리틱스 분야는 AI와 데이터 기반의 소통 분석에 중점을 둡니다. 인공지능 미디어 코딩,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AI 큐레이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배울 수 있어요.

이외에도 넷플릭스나 네이버 같은 미디어 기업의 전략을 배우는 산업 관련 강의, 매체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넓히는 ‘매체철학’, 언론 관련 법과 윤리를 다루는 ‘미디어윤리법제’, 그리고 언론사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언론사상과 역사’ 등 폭넓은 선택 과목도 마련되어 있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전공 선택 계기]

Q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경희대학교에 자율전공이 아닌 언론정보학과(현재의 미디어학과)로 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언론인, 특히 기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그 꿈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전공이라고 생각해 미디어학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기자가 되기 위해 꼭 언론 관련 전공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론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좋은 언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취재 기술이나 글쓰기 능력만이 아니라, 언론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까지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경영이나 경제처럼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보다도, 언론 자체를 중심에 두고 고민하고 배울 수 있는 이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선택이 제 진로에 단단한 방향성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조언은 무엇이었고, 누가 해주었나요?

가장 큰 영향을 준 조언은 고등학교 선배에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 선배는 현재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했다고 했어요. 법학의 지식이 기자로서의 취재나 분석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만약 언론에 대한 고민을 더 일찍부터 해볼 수 있었다면 기자라는 직업에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그 선배는 미디어학과에서 배우는 미디어와 매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기자라는 직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기자로서의 정체성을 미리 고민하고 훈련할 수 있는 전공’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결국 미디어학과를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미있게,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전공을 선택할 때 진로, 취업 전망, 전공의 안정성 같은 요소들을 많이 고려하는데, 물론 이런 현실적인 조건들도 중요하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전공을 4년 이상 공부하고, 때로는 진로와도 연결시켜야 하는 만큼, 그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가 없으면 결국 지치게 됩니다.

실제로 학교에 들어와보면, 처음엔 콘텐츠 소비로서 미디어를 좋아해서 전공을 선택했지만, 학문으로서의 미디어학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해 전과하거나, 다전공을 통해 다른 방향을 찾는 친구들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미디어라는 분야는 보기엔 재미있고 트렌디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론적 토대와 비판적 사고, 그리고 연구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콘텐츠가 재미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전공을 선택한다면, 공부하면서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반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학문적 관점에 조금이라도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게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꼭 모든 분야에 다 관심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널리즘, 광고 PR, 문화콘텐츠, 데이터 분석, 인간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세부 전공 중에서 단 하나라도 ‘이건 정말 재미있다’고 느끼는 분야가 있다면, 공부가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줄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와 이 전공 사이에 ‘지속 가능한 관심’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공 공부의 현실]

Q 전공 선택 전후로 기대했던 점과 실제 느낀 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는, 미디어학과에 들어오면 곧바로 기자가 되기 위한 실무적인 기술이나 콘텐츠 제작 역량을 배우게 될 줄 알았습니다. 뉴스 기사 작성, 인터뷰 방법, 영상 편집 등 활동적이고 현장감 있는 공부가 많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입학해서 전공기초 과목들을 접해보니, 방송과 인터넷, 미디어 기술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이론, 심리학, 통계학 등 이론적 기반을 먼저 탄탄히 다지는 과정이 중심이었습니니다.

이 점이 처음엔 조금 낯설기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학문을 넓고 깊게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였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무를 넘어서, 왜 사람들이 특정 방식으로 소통하고, 그 소통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흥미로웠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전공의 스펙트럼이 훨씬 넓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영상, 콘텐츠, 광고, 저널리즘 같은 분야만 존재할 줄 알았는데, 막상 수업을 들으면서 매체철학, 미디어 윤리와 법제, AI와 연계된 미디어 데이터 분석 같은 깊이 있는 영역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원래는 저널리즘 분야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전공 수업을 들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를 분석하고, 미디어 현상을 수치로 해석하는 방식에 점점 더 끌리게 되었어요. 전공을 공부하면서 스스로의 진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처음의 기대와 실제 경험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그 차이를 통해 오히려 더 다양한 길을 찾을 수 있었다는 점이 전공 공부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Q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저는 국회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을 때 전공 선택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디어학의 넓은 스펙트럼이 국회 보좌진 업무 하나하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실의 홍보 업무를 맡을 때는 학과 수업을 통해 익혔던 영상 촬영 기술과 어도비 툴 사용 능력이 매우 유용했습니다. 콘텐츠를 기획하고, 카드뉴스를 제작하며, 영상을 편집하는 일은 단순한 기술 이상의 기획력과 미디어 감각이 필요했는데, 전공 수업에서 이미 그런 감각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죠.

또한,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고 핵심만을 간결하게 정리해야 했는데, 그때 ‘미디어 작문’ 수업에서 훈련했던 명료한 글쓰기와 정보 구성 능력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것

넘어서, 어떻게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정보를 구성하고 전달할지를 고민하는 역량이 실제 업무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어요.

입법안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론과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고 법안의 논거를 찾는 과정에서, ‘소셜 데이터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배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술이 매우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견을 만들고 설득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공에서 배운 능력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미디어학과에서 배운 것들이 국회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로 쓰일 수 있다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결국 하나의 분야만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분야를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큰 힘이 된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전공을 선택한 것이 저에게 참 잘한 선택이었다고 느꼈습니다.

Q 전공에서 추천하고 싶은 교과목이 있다면?

제가 특히 추천하고 싶은 과목은 세 가지입니다. 모두 성격은 다르지만, 미디어학을 더 깊고 넓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 수업들이에요.

첫 번째는 ‘매체철학’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렵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상 들어보면 전공에 대한 태도 자체가 바뀔 정도로 인상 깊은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은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미디어에 대한 생각을 철학자들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미디어가 진실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인간과 기계의 경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같은 질문들을 던지며 사고의 깊이를 넓혀줍니다. 단순히 미디어를 ‘도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인식과 사회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민할 수 있었고, 그런 철학적 태도는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든든한 기반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언론사상과 역사’입니다. 이 수업은 언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 지금 우리가 보는 뉴스 시스템으로 발전했는지를 다룹니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미디어는 매우 익숙한 존재지만, 그 기원과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이 수업을 통해 저는 현대 언론 시스템을 단순히 기술의 결과물로 보기보다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 검열, 대중과의 관계 같은 문제들을 역사 속 사례와 연결해 생각할 수 있어 정말 유익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과목은 ‘소셜 데이터 프로그래밍’입니다. 이 수업은 단순한 통계나 코딩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 속 ‘관계’와 ‘구조’를 데이터로 분석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강의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활동은 인터넷 댓글과 대댓글을 하나의 ‘대화’로 간주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의 소셜 네트워크를 시각화하고 분석해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 기사에 달린 수백 개의 댓글과 그에 대한 반응들을 추출해 각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네트워크로 형성해보았는데, 이를 통해 사람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어떻게 연결되고, 누구의 의견이 중심이 되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데이터 분석이 단지 숫자를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사회의 대화 구조와 여론 형성 과정을 탐구하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코딩이라는 기술적 장벽도 있지만, 수업을 따라가다 보면 점차 데이터를 읽고 의미를 해석하는 힘이 생기고, 이는 미디어학 안에서도 매우 차별화된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니라 ‘구조화된 관계’로 이해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수업은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공 관련 활동]

전공과 관련해서는 방송연구회 활동과 뉴스 빅데이터 해커톤 참여가 기억에 남습니다.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에는 광고PR학회, 방송연구회, 연극연출학회, 영화비평학회의 4가지 학회가 있는데, 저는 그중 방송연구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학회에서는 영상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전 과정을 팀 단위로 진행합니다. 혼자서는 실현하기 어려웠던 아이디어들을 친구들과 함께 구현해보는 경험이 정말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시청자의 선택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는 인터랙티브 영상 콘텐츠 제작이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아이디어를 모으고, 복수의 플롯을 구성한 후, 실제 영상으로 구현하는 데까지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가 단순한 구상에 머무르지 않고, 팀워크를 통해 실제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큰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빅카인즈(BigKinds)가 공동 주관하는 ‘뉴스 빅데이터 해커톤’에도 참가한 경

Q 전공과 관련하여 참여한 활동(동아리, 공모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Q 해당 전공과 관련한 경험 중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험이 있습니다. 이 대회는 뉴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안하는 공모전이었습니다. 평소 뉴스를 왜 읽어야 하는지, 뉴스 정보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던 저에게 매우 의미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경제신문 기사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경제 퀴즈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도 흥미를 느끼며 공부할 수 있도록, 퀴즈 형식을 차용한 교육 서비스의 데모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뉴스 데이터 분석, AI 응용 기획,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까지 폭넓은 학제 간 융합적 사고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활동을 통해 저는 이론으로 배운 미디어 지식이 실제 창작과 사회적 기획 속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고, 학문을 실천으로 연결하는 미디어학의 힘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디어학과에 진학하는 분들에게 학회 활동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에는 다양한 학술 학회가 있고, 대부분 1~2학년 때 저학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학년이 되기 전에 경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회에서는 수업 시간에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주제적인 경험들을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방송연구회에서 활동하며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친구들과 함께 촬영과 편집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협업의 가치와 창작의 어려움을 모두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회 활동은 전공 수업에서 느낀 흥미를 실제 프로젝트로 확장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광고, 저널리즘, 영상, 연극, 비평 등 각기 다른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과 역량을 접하며 스스로의 관심 분야를 더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전공에 대한 이해가 막 시작되는 시기인 저학년 때, 학회를 통해 자신만의 방향을 찾는 경험을 해보는 것은 앞으로의 전공 공부나 진로 선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한 마디]

미디어학과는 단순히 영상이나 콘텐츠를 만드는 기술만 배우는 전공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뉴스, 광고,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미디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이론과 실재를 넘나들며 깊이 있게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관찰하는 데 관심이 많고, 현상에 대해 ‘왜 그런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학생이라면 이 전공과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이 광고가 재미있다”라고 느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왜 이 광고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걸까?”, “이 뉴스는 어떤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있을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다면, 미디어학은 매우 흥미롭고 보람 있는 전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학은 다양한 사회과학 및 인문학과 연계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소셜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기술 트렌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디어 콘텐츠는 AI 기반의 추천 시스템이나 알고리즘을 통해 소비되며,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핵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술 변화에 관심이 많고, AI나 데이터 기반의 사회 분석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에게도 매우 잘 맞는 전공입니다.

아울러 미디어학은 대중문화의 흐름과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전공입니다. 영화, 드라마, 예능, 유튜브, 밈, SNS 콘텐츠처럼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문화현상을 학문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틀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일상의 콘텐츠를 단순히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미디어학을 통해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전공은 혼자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실제 콘텐츠나 기획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학회 활동, 공모전, 팀 프로젝트를 통해 그러한 협업을 경험할 기회가 많으며, 생각을 실현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기자가 되기 위해 이 전공을 선택했지만, 공부를 하면서 미디어와 사회의 관계, 여론과 데이터, 기술 변화 속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그리고 철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 그리고 기술과 문화,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학생이라면, 미디어학 전공은 분명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내가 선택한 전공은 어떤 학생에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하나요?



경영대학 경영학과

| 22학번 유지민

재학생
이야기

[전공 소개]

Q 간단히 본인의 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이 전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경영학은 기업의 재무/금융, 생산운영, 마케팅, 인사조직, 경영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경영학을 전공으로 공부하게 된다면, 기업이 원하는 특정한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 속 비즈니스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전공 선택 계기]

Q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직 혹은 기업이 원하는 특정한 산출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자원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배우는 것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재무/금융 분야에 대해 실무적인 내용을 알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실습 등의 경험을 갖고파 경영학과를 택하였습니다. 진학 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학습하여 다양한 진로로 연결될 수 있는 유연함도 큰 이유였습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조언은 무엇이었고, 누가 해주었나요?

부모님께서 제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배우는 걸 좋아한다면, 그런 환경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해보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팀워크와 소통이 중요한 경영학이 저에게 잘 맞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관심사와의 관련성과 해당 전공이 본인의 관심사와 얼마나 맞는가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전공으로 진학하여 최소 4년간 심층적으로 학습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흥미를 느끼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분야인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배움이 자신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동기 부여가 되는지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전공 공부의 현실]

Q 전공 선택 전후로 기대했던 점과 실제 느낀 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처음엔 이론보다 실무 중심일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기초 이론 공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론이 기반이 되어야 실무에서 잘 활용할 수 있기에 흥미를 갖고 학습하고 있습니다.

Q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팀 프로젝트를 하며 마케팅 전략을 직접 기획했을 때 정말 흥미롭고 뿌듯했습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론을 배우는 것에서 나아가 해당 지식을 현실과 연결하여 활용하는 프로세스까지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Q 전공에서 추천하고 싶은 교과목이 있다면?

‘책임경영’을 추천합니다.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 외에도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중요한 개념을 다루기에,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성장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유익합니다.

[전공 관련 활동]

Q 전공과 관련하여 참여한 활동(동아리, 공모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교내 경영학회에 참여해 산학협력 세미나와 관련 기업 미팅을 하여 설계한 전략을 제안하고 피드백받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실제 기업 운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Q 해당 전공과 관련한 경험 중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교내 학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세미나에 참여하며 다양한 분야의 실무 지식을 접하고 직접 활용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배들과의 교류를 통해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도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한 마디]

Q 내가 선택한 전공은 어떤 학생에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하나요?

사람과 사회, 조직에 관심이 많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에게 추천합니다. 진로가 특정 분야로 정해지지 않아서 다양한 분야를 접하며 자신의 진로를 넓히고 싶은 학생에게도 잘 맞아요.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 23학번 박서린

재학생
이야기

Q 간단히 본인의 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이 전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전공 소개]

회계·세무학과에는 기업의 경영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회계정보 처리와 이밖의 다양한 경영과목들을 배우면서 회계, 재무 및 다양한 경영분야로 나아가기 위한 지식들을 배웁니다.

Q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공 선택 계기]

회계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이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조언은 무엇이었고, 누가 해주었나요?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가장 큰 조언을 해주셨고, 다양한 미디어 자료에서도 조언을 받았었다.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고, 이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전문직과 다양한 자격증 시험등이 존재한다는 조언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전공적합성과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에 자신이 얼마나 적응하고 녹아들 수 있는지가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전공에 올 수 있는 성적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전공 선택 전후로 기대했던 점과 실제 느낀 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전공 공부의 현실]

회계라는 과목이 배우지 못했던 과목이라서 생소하고, 어려웠는데 교수님께서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또한 회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영과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룬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Q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1학년 전공 교수님께서 담임 선생님처럼 학생들을 관리해주고, 교수님들께서 회계 전문 지식들과 애정이 풍부하신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전공에서 추천하고 싶은 교과목이 있다면?

관리회계와 재무회계, 재무관리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과목입니다. 본격적으로 회계에 대해 다루는 과목이라 전공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졌습니다.

Q 전공과 관련하여 참여한 활동(동아리, 공모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전공 관련 활동]

회계세무학과 학술 동아리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회세미나와 회계를 다루는 학술제에 참여하면서 수업시간에 배웠던 지식을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었습니다.

Q 해당 전공과 관련한 경험 중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학술동아리를 특히 추천합니다. 실제 기업의 자료를 보면서 적용하고, 직접 분석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고, 학과 내 선배, 동기들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외에서 학과에서 주최하는 모든 활동에는 꼭 참여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Q 내가 선택한 전공은 어떤 학생에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하나요?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한 마디]

독해능력과 수리적 사고 능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 하지 않고 궁금증을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학생에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경영대학

빅데이터응용학과

| 24학번 김 동 하

재학생
이야기

Q 간단히 본인의 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이 전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전공 소개]

수학, 통계학, 컴퓨터과학, 데이터베이스 등과 더불어 기초적인 경영학 과목들을 수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경영자 혹은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한 학문에 대해 배웁니다.

Q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공 선택 계기]

4차 산업혁명, AI시대라고 불리는 현재의 중심에는 빅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움직임을 비롯한 삶에는 데이터가 발생하며, 이 데이터들은 곧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데 이바지합니다. 데이터가 자산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을 갖추어 사회로 진출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본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조언은 무엇이었으며, 누가 해주었나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던 와중에 ChatGPT에 관한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은 성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다주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LLM모델은 결국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존재함에 따라 생겨난 모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뉴스 기사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빅데이터, AI 등의 말들이 오가는 세상에서 본 전공에 관심이 생겨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전공을 선택하게 된 이후로는 전공 분야에 관하여 점점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게 되기에, 본인의 흥미가 전공 선택에 있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분야에 관심이 생겼는지, 어떤 것을 배워 무엇을 하고 싶은 지 등의 의지와 관심,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공 공부의 현실]

Q 전공 선택 전후로 기대했던 점과 실제 느낀 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처음 전공을 선택할 때는 ‘데이터 분석’이란 분야가 데이터를 다루고 프로그램을 짜는 등 코딩 중심의 기술적인 작업일 거라고 막연히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업과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느낀 건, 코딩은 분석의 수단일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통해 내 아이디어를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전공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사고하고, 말하고, 설득하는 방법을 익히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Q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현재 융합 전공 과목 중 개설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수업을 수강 중입니다. 지리학과 교수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시며, 코딩과 시각화, 데이터 분석을 지리 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분석하고, 머신러닝을 진행하는 등의 능력은 다른 많은 학문들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회계학에 관심이 생겨 다전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 분야에도 AI와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으며, 재무빅데이터분석사 등의 직종도 존재하는 등 회계 분야에서도 빅데이터의 활용이 널리 적용되고

Q 전공에서 추천하고 싶은 교과목이 있다면?

있습니다. 제가 관심이 생기는 어떤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머신러닝 기초 및 응용’ 과목은 데이터 분석가로서 필수적인 머신러닝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학적 이론과 공학적 응용을 균형 있게 다루며, 기초부터 탄탄히 학습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 또한 ‘비즈니스(빅데이터) 애널리틱스’ 과목은 분석 결과를 단순히 도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경영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데이터 분석의 실질적인 활용법을 배우기에 적합한 과목입니다.

[전공 관련 활동]

Q 전공과 관련하여 참여한 활동(동아리, 공모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Wanted’와 경희대학교에서 공동주최한 프롬프트 공모전에 참여하여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위 공모전은 LLM모델을 활용하여 대학 내의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공모전입니다. 프롬프팅을 통해 LLM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은 직접적인 코딩이 필요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있어 할루시네이션을 잘 제어하고, 높은 품질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현재는 성남시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에 참여하여 판교 테크노밸리 부근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체증 현황 및 대중교통 이용 현황 등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입니다. 이외에도 공공데이터 및 자유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다양한 공모전이 있습니다.

Q 해당 전공과 관련한 경험 중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해당 전공과 관련한 경험 중에서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공모전 참여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른다’,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에 망설일 수도 있지만, 직접 부딪히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실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데이터 분석 역량은 물론, 팀워크와 문제 해결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경험은 외부 세미나 참여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시각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 생각의 폭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한 마디]

Q 내가 선택한 전공은 어떤 학생에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하나요?

논리적인 사고력과 호기심이 강한 학생에게 잘 맞는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단순히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도구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만큼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데 거부감이 없는 학생, 그리고 협업 프로젝트를 즐길 수 있는 학생에게 특히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호텔관광대학

Hospitality 경영학과

| 24학번 임고은

재학생 이야기

Q 간단히 본인의 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이 전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전공 소개]

Hospitality경영학과는 관광 산업의 핵심인 호텔, 외식, 컨벤션(MICE) 산업을 폭넓게 배우는 전공입니다. 단순히 '서비스'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무 능력과 경영학적 지식을 함께 기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존 호텔경영학과, 컨벤션경영학과, 외식경영학과가 하나로 통합된 학과로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키울 수 있으며, 회계, 마케팅, 인사관리 등 경영학 분야도 함께 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실습과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 중심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진로 선택의 폭이 넓고 실무에 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 선택 계기]

Q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시절 3년 내내 호텔리어를 꿈꿔왔기 때문에 Hospitality경영학이라는 전공을 선택하였습니다. 단순히 여행이나 호텔이 좋다는 이유가 아니라, 다양한 고객에게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그들의 일상에서 특별한 순간을 선물하는 서비스 직업이라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께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들어드릴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이 특히 인상 깊게 다가왔고, 이러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하여 Hospitality경영학과에 진학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장학습실습' 과정을 통해 실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전공을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강의실 안에서 책으로 배우는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호텔·외식·관광 기업 등의 현장에서 몸소 배우는 경험은 서비스 직업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직접 고객을 응대하고 팀 단위로 움직이는 조직 내에서 실습하는 과정을 통해, 제가 꿈꾸는 호텔리어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또한 Hospitality경영학과는 호텔·외식·MICE 산업을 아우르며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배울 수 있어, 전공을 배우는 과정에서 스스로 어떤 분야에 더 흥미와 적성이 있는지 탐색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론 수업, 실습수업, 그리고 현장실습을 거치며 제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고, 혹여나 중간에 호텔리어라는 꿈이 바뀌게 되더라도 다양한 학문 분야를 경험했던 덕분에 또 다른 진로를 유연하게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하였습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조언은 무엇이었으며, 누가 해주었나요?

제가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조언은 "네가 가장 오래 관심 가졌던 것을 선택해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입니다. 사실 희망 진로는 명확했지만, 전공을 선택할 때는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나중에 취업이 잘 되는 전공을 택하라고 조언해 주었고, 또 어떤 분은 연봉이 높은 전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자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저 역시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조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담임선생님께서 오랫동안 흥미를 가진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후회가 적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이 제 선택에 결정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들의 기준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관심 있고 좋아하며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고, 그 결과 Hospitality경영학과라는 전공을 후회 없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전공이 내 흥미와 얼마나 맞는지'를 스스로 고민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전공학부 친구들은 다양한 전공 수업을 미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동안 어떤 주제에서 내가 더 몰입하게 되는지를 잘 관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막연히 사람과 관련된 일이 좋아서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전공 수업을 듣다 보니 서비스 산업이 단순히 사람을 응대하는 걸 넘어서, 경영·기획·공간 운영 등의 여러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야 함을 알게 됐고 그게 저한테 다른 한편으로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일단 흥미 있는 학문을 찾는다면 그 속에서 또 다른 재미와 흥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로는 언제든 바뀔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은 진로에 대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수업을 듣고 흥미롭게 느껴지는 순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공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스스로 선택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나에게 잘 맞는 옷을 하나씩 골라보는 과정처럼 수업을 들으면서 내게 잘 맞는 것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발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결국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공 공부의 현실]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는 'Hospitality경영학과'라고 하면 왠지 호텔이나 여행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배우는 전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응대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공 수업을 듣고 나니 서비스 산업은 단순히 사람을 잘 대하는 걸 넘어서 경영학, 마케팅, 공간 운영, 고객 데이터 분석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야 하는 분야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사고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상 깊었고 동시에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점들이 이 전공의 진짜 매력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배우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졌고, 서비스라는 개념을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상했던 부분과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그만큼 더 깊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전공 선택 전후로 기대했던 점과 실제 느낀 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전공을 잘 선택했다고 느꼈던 순간은 MICE 산업 관련 수업을 듣고 코엑스 전시회를 직접 방문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제를 했을 때였습니다. 사실 그 수업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MICE 산업이 어떤 분야인지 잘 알지 못했고, Hospitality경영학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호텔 경영 분야에만 흥미를 느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통해 MICE가 단순한 행사 기획을 넘어, 다양한 산업과 직무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복합적인 분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시 현장을 보니 훨씬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Hospitality경영학 전공생이 아니더라도 코엑스 전시회 관람객으로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 수업을 통해 기본적인 개념과 구조를 익힌 상태에서 가보니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실감 납니다. 평소 같았으면 스쳐 지나갔을 운영 방식, 동선 설계, 공간 활용 등이 눈에 들어오고,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관찰되었습니다.

그 과제를 통해 MICE 산업을 직접 체험하듯 배울 수 있었고, 제가 단순히 호텔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진로의 가능성을 넓혀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이 전공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전공에서 추천하고 싶은 교과목이 있다면?

Hospitality경영학과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과목은 'Hospitality 데이터의 이해'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Hospitality산업과 관련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데, 개인적으로도 전공 강의 중 가장 실무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과목입니다.

엑셀을 활용해 데이터를 정리해 보고, 태블로(Tableau)라는 시각화 도구를 이용해 특정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산업의 흐름을 읽어보는 경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나 성수기·비수기와 같은 운영상의 흐름을 수치로 도출하고 해석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속에 사람들의 행동과 패턴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역량은 Hospitality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재 모든 산업 전반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과목은 이러한 환경 속에

서 살아남기 위한 기본적인 역량과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준 수업이었습니다. 이론과 실습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어 전공의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게 해주고 실무 감각을 키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과목이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공 관련 활동]

Q 전공과 관련하여 참여한 활동(동아리, 공모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경희컨벤션학회(KHCS)’라는 학회의 학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희컨벤션학회는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소속 학회 중 MICE 산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일한 학회로, 매년 MICE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과 자체 행사를 운영하여 학회원들이 산업을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학기에는 학회원들 간의 스터디를 비롯해 외부 연사 특강, 컨벤션 센터 견학, 안동컨벤션센터 팸투어 등의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2학기에는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KME) 현장 답사, 경쟁 PT, 동문 멘토링, 홈커밍데이 등 보다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의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찬 학회 활동을 통해 MICE 산업의 구조와 흐름을 직접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전공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현장과 연결 지어 볼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학회를 통해 MICE 산업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었고, 팀 단위 활동이나 발표, 견학을 통해 자연스럽게 실무 감각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전시 관람이나 스터디를 넘어서, 기획과 실행, 그리고 PT에 대한 피드백까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강의실에서 배우는 이론을 넘어 MICE 산업을 더 입체적이고 활동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해당 전공과 관련한 경험 중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Hospitality경영학과 전공 수업 중엔 여러 실습수업이 있는데 이와 같은 수업을 꼭 한 번은 수강해 보길 추천합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특히 인상 깊게 수강했던 수업은 ‘와인학과 테이스팅’이라는 실습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 와인에 대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단순히 마시는 술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와인이라는 세계가 얼마나 복잡적이고 깊이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업에서는 다양한 포도 품종과 산지, 숙성 방식에 대한 이론 수업과 함께 직접 시음을 해보며 향과 맛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와인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던 저도 점차 향을 구분하고 맛의 특징을 해석할 수 있게 되면서 스스로의 감각이 넓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한 분야를 깊이 들여다보며 흥미와 전문성을 함께 키울 수 있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은 국내에서 1위인 만큼 훌륭한 교수님들로부터 실무 중심의 수업을 직접 수강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수업 역시 교수님의 현장 경험과 와이너리 방문 후기 등 현장감 넘치는 경험담들이 더해져 이론 이상의 생생한 배움을 얻을 수 있었고, Hospitality 산업 안에서도 와인이라는 세부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습 중심의 수업을 통해 진로의 가능성을 확장해 보고 싶은 학생이라면 꼭 경험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한 마디]

Q 내가 선택한 전공은 어떤 학생에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하나요?

Hospitality경영학과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단순히 서비스업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호텔·외식·MICE 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배우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분야보다는 여러 분야에 두루 관심이 있는 학생에게도 잘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론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습이나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이 많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보며 배우는 걸 선호하는 학생들에게도 잘 맞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현장에 대한 이해, 고객의 니즈를 읽는 감각,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까지 함께 요구되기 때문에 사람과 시스템을 함께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길러나갈 수 있습니다.

꼭 사람을 좋아하는 학생이 아니라도 고객 경험, 공간, 운영, 마케팅 등 서비스 산업을 다양한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싶은 학생이라면 이 전공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호텔관광대학

조리&푸드디자인학과

| 22학번 이나현

재학생 이야기

[전공 소개]

조리&푸드디자인학과는 외식산업 전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조리 및 외식 서비스, 경영에 관한 이론 수업으로 외식 관련 지식을 습득하며 조리 실습을 통해 기술을 함께 익힙니다. 이론과 실무, 조리와 디자인 경영 모두에 능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전공 선택 계기]

조금 늦게 조리에 관심이 생겼지만, 이 전공이라면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리를 할 때 오는 즐거움, 누군가와 나눌 때 느끼는 기쁨, 원리를 알고 접근했을 때 다가오는 뿌듯함은 조리에 열정을 쏟기에 충분했습니다.

전문 기술을 가지는 학과이기에 주변에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너의 가슴이 시키는 걸 믿고 따르라는 부모님의 말씀은 가장 영향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조리가 아니더라도, 저는 모두가 ‘가슴이 시키는 전공’을 선택했으면 합니다. 내가 정말 즐길 수 있는 것을 선택했을 때 가장 즐겁고 후회가 없으니까요.

위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누군가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취업부터 걱정하며 남들이 많이 가는 전공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직 찾지 못해 내 점수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학교를 선택합니다.

[전공 공부의 현실]

예상보다 실습보다 이론 수업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수업을 들어보면 이론 수업이 많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조리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이해하며 그것을 실습에 적용하고, 내가 가진 조리 지식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영학 지식도 함께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전공의 교육과정은 조리과를 졸업했다고 단순히 조리 관련 실무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닌, 창업이나 개발 등 다양한 직무로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전공 수업을 들으며 ‘재미있다’라고 느낄 때마다 ‘나는 전공을 잘 선택했구나’ 느낍니다. 특히 조리 전공은 실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음식과 관련되어 있으니 특히 더 재미있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학과 친구들과 수업이 끝난 후 같이 식사하며 방금 배운 조리원리가 이 음식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이야기하며 웃는 시간이 저는 매우 재미있다고 느꼈습니다.

‘식품상품개발론’을 가장 추천합니다. 해당 교과목은 4학년 대상 수업으로, 전공에서 배운 이론과 실무 지식을 모두 적용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직접 수강하고 있는 과목으로, 저는 지금 ‘교촌 치킨의 신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전공의 특성상 식품 개발이나 연구, 마케팅 직종을 희망하는

Q 간단히 본인의 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이 전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Q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조언은 무엇이고, 누가 해주었나요?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Q 전공 선택 전후로 기대했던 점과 실제 느낀 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Q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Q 전공에서 추천하고 싶은 교과목이 있다면?

학생이 많은데, 이 수업을 들으면 내가 희망하던 직종이 나와 잘 맞는지 직접 경험하며 확인할 수 있어 취업 직전인 4학년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공 관련 활동]

Q 전공과 관련하여 참여한 활동(동아리, 공모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양식조리학회에 2년 간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2년 차에는 학회장까지 맡으며, 양식조리학회에 많은 열정을 쏟았습니다. 양식조리학회는 조리과에 진학했지만 조리 경험은 적은 학우들에게 매우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공에서 실습 수업을 진행하기 이전, 조리에 대한 기본 지식과 간단한 기술을 익히며 전공을 더 잘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Q 해당 전공과 관련한 경험 중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이 질문에는 우리 학과 학생 모두가 'WFF'를 말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조리&푸드디자인학과는 매년 'World Food Festival(이하 WFF)'라고 불리는 대규모 요리 축제를 주관합니다. 학생들이 다이닝 식사, 주점, 베이커리 등의 팀으로 나뉘어 직접 요리하고 서비스하며 전공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축제는 직접 실습함으로써 진로 이해도를 높이고 학과 애정도를 쌓을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한 마디]

Q 내가 선택한 전공은 어떤 학생에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하나요?

조리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음식을 만들며, 새로운 음식을 접하며 잠시라도 행복을 느꼈다면 조리&푸드디자인학과에서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텔관광대학
관광·엔터테인먼트학부
관광학과

24학번 신비



[전공 소개]

관광학과는 사람들이 왜, 어디로, 어떻게 여행을 떠나는지를 탐구하는 것에서 시작해, 여행과 관광을 하나의 산업으로 이해하고 기획하는 법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사람과 장소, 문화, 그리고 다양한 산업을 연결하는 방법을 다루며, 이론과 실무를 폭넓게 아우르는 것이 특징이에요.

구체적으로 관광학원론이나 경영학원론 같은 기초 과목을 통해 관광산업의 구조와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관광상품 기획, 마케팅, 소비자 행동 분석 등 실질적인 역량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관광, 빅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기술과 융합된 수업도 늘어나고 있어서, 변화하는 산업 흐름에 발맞춘 실무 능력도 갖출 수 있습니다.

[전공 선택 계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흥미가 많았어요. 학창시절 내내 '나중에 꼭 여행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막연하지만 꾸준한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승무원이 되고 싶었고, 또 어떤 날은 여행상품 기획자나 관광통역안내사가 되고 싶기도 했어요. 이렇게 여행을 매개로 다양한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는 일을 꿈꾸곤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관광학과는 단순히 여행을 좋아하는 마음을 넘어서, 관광산업의 구조와 흐름을 배우고 마케팅, 정책, 디지털 기술 등 실질적인 분야까지 확장해서 배울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전공이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공부로, 나아가 직업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전공을 선택할 때 저는 막연한 꿈과 현실적인 고민 사이에서 많이 고민했어요. 문화, 역사, 지리, 언어, 여행 등 관심 있는 분야는 정말 많았지만, 그중 하나를 '전공'으로 고른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고요. 흥미는 있지만 이게 나중에 직업으로 이어질지 확신도 없었고, 반대로 흥미 없는 길은 오래 버틸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했죠.

그때 어머니께서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선택해. 결국엔 너는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라고 해주신 말이 큰 도움이 됐어요. 그 말 덕분에 '정답'보다는 '지속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게 되었고, 결국 좋아하는 것을 배우며 실무로 연결할 수 있는 관광학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전공이 나와 잘 맞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관심 있는 분야인지'를 스스로 충분히 고민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학우들이 전공 선택 이후에 "적성에 맞지 않는다"거나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흥미를 잃었다"고 말하곤 하거든요. 어떤 전공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선택하면, 공부 자체에 흥미를 느끼기 어렵고 결국엔 취업 걱정만 커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 선택 전에는 해당 학과의 홈페이지나 커리큘럼을 꼼꼼히 살펴보고, 어떤 과목들을 배우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걸 꼭 추천하고 싶어요.

Q 간단히 본인의 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이 전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Q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조언은 무엇이었고, 누가 해주었나요?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전공 공부의 현실]

Q 전공 선택 전후로 기대했던 점과 실제 느낀 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처음에는 관광학과라고 하면 여행과 관련된 실무 중심, 활동적인 수업이 많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막상 전공 수업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이론적인 내용이 많고,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도 있어서 처음엔 조금 당황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점차 수업을 따라가면서, 팀 프로젝트를 통해 관광상품을 기획하거나 정책과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지를 개발해보는 등의 실무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론이 실무 수업의 탄탄한 기반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점점 더 전공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영어 수업 역시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가며 쉽게 설명해주셔서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었고,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경우도 많아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교류할 기회가 많다는 점도 이 전공의 큰 매력 중 하나라고 느껴요.

Q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공 선택에 후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관광학과에 진학하고 나서 외국인 유학생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 해외여행 수요가 다시 활발해지고, 지역 관광도 점점 주목받고 있는 점 등, 관광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현실을 체감할 때마다 '잘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관광은 마케팅, 정책, 문화, 경영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진로 선택의 폭도 넓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예요. 덕분에 잡지식(?)도 풍부해져서 일상 대화에서도 아는 척할 수 있어요! ㅎㅎ

Q 전공에서 추천하고 싶은 교과목이 있다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과목은 '시공간관광정보의이해'입니다. 이 수업은 QGIS라는 공간정보 프로그램을 활용해, 관광과 관련된 데이터를 지도로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이예요. 관광객의 이동, 지역 자원의 분포, 정책 효과 등을 실제 지도 위에 표현해보면서, 관광 현상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특히 인상 깊었어요.

이 과목은 단순히 프로그램 사용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관광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제 의사결정에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 다루기 때문에 관광학을 공부하면서 데이터 기반 사고력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또한 이 과목은 '시공간관광데이터사이언스' 마이크로디그리 과정과도 연계되어 있어요.

마이크로디그리는 특정 분야를 깊이 있게 배우는 소규모 집중 교육과정인데, 시공간 데이터를 다루는 역량을 갖추면 관광 빅데이터 분석가, 지역 관광 기획자, 공공기관의 데이터 분석 직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에 관광을 단순한 여행이 아닌 '데이터'와 연결해보고 싶다면 꼭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전공 관련 활동]

Q 전공과 관련하여 참여한 활동(동아리, 공모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저는 현재 경희컨벤션학회에서 콘텐츠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 학회는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산업 전반에 대해 배우고, 코엑스나 킨텍스 같은 실제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박람회나 전시회를 찾아가며 현장을 경험해볼 수 있는 학회입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학회원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해보는 기회도 있어서 실무적인 감각을 키우는 데 정말 도움이 돼요. 또 공모전에 함께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서, 관심 있는 분야에 실질적으로 도전해보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요. MICE 산업은 최근 특히 주목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이 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가고 싶거나, 전공 수업 외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예요. 관광과 MICE 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실무 경험은 물론 좋은 네트워크까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Q 해당 전공과 관련한 경험 중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관광학회 활동도 추천하고 싶어요. 이 학회에서는 카지노 실무와 관련된 수업과 체험 활동을 하는데, 단순히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블랙잭, 룰렛, 포커, 바카라 같은 카지노 게임을 직접 해보고 운영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Q 내가 선택한 전공은 어떤 학생에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하나요?

특히 '카지노피아'라는 학회 축제를 통해 학회원들이 딜러가 되어 손님을 맞이하고, 실제 카지노처럼 공간을 구성해 직접 운영해보는 색다른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한 분야인 카지노를 실습 중심으로 이렇게 생생하게 접해볼 수 있는 건 관광학회만의 차별화된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꼭 한 번쯤 참여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한 마디]

관광학과는 외국어를 좋아하고, 여행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학생에게 잘 맞는 전공이라고 생각해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즐기며 새로운 것을 탐구하기 좋아하는 성향이라면 더더욱 잘 어울릴 거예요.

또한 관광은 기획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해보고 싶은 학생, 그리고 도전하고 개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호텔관광대학

관광·엔터테인먼트학부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 24학번 장 서 희

재학생
이야기

[전공 소개]

Q 간단히 본인의 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이 전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이해하고, 이를 기획·운영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키우는 전공입니다. 인문학적 지식과 사회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의 흐름을 배우며, 방송, 공연, 영상, 관광, 게임 등 여러 산업 분야를 폭넓게 다루며, 문화 기획과 마케팅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와 융합적인 실무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화엔터테인먼트이해’, ‘콘텐츠기획입문’, ‘영상엔터테인먼트산업’ 같은 전공 과목을 통해 이론과 실제를 균형 있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전공 선택 계기]

Q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릴 적부터 방송, 영화, 공연 같은 콘텐츠를 보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단순히 시청하고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이 장면은 누가 기획한 걸까?’, ‘이 콘텐츠가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방식은 무엇일까?’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지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역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왔을 때,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하며 동시에 사회적인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전공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를 알게 되었고, 콘텐츠 기획과 문화산업 전반을 폭넓게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특히 요즘은 콘텐츠가 하나의 산업을 이룰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K-콘텐츠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도 전공 선택에 있어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면서도, 앞으로의 사회 변화 속에서 실질적인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전공이라는 점에서 확신을 갖고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조언은 무엇이었는지, 누가 해주었나요?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됐던 조언은 “너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걸 얼마나 오래 끌고 갈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조언은 제가 진로 고민으로 힘들어하던 시기에, 다시 입시를 준비하면서 아버지께 들었던 말인데, 단순히 사회적인 시선이나 외부의 평가보다는 제가 직접 겪고 느낀 흥미와 경험에 더 집중해보라는 말이 마음에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내가 이 분야에 얼마나 흥미를 느끼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취업이 잘된다고 알려진 전공이라도, 본인이 진짜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공부하는 동안 흥미를 잃기 쉽고, 진로에 대한 확신도 점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생활은 짧지 않고, 과제나 프로젝트 등 스스로 움직여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흥미와 열정을 기준으로 전공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인 흐름이나 산업의 방향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요즘 어떤 산업이 뜨고 있는지, 또 이 전공이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를 현실적으로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나의 흥미와 사회의 변화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다면, 전공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이후의 진로를 고민하는 데에도 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Q 전공 선택 전후로 기대했던 점과 실제 느낀 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전공 공부의 현실]

전공을 선택할 때는 주로 방송이나 영상 같은 미디어 산업, 혹은 콘텐츠 마케팅과 같은 분야에 대해 배우게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콘텐츠 제작의 실무적인 부분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키우는 데 집중된 커리큘럼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공 수업을 듣고 나니,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콘텐츠 산업을 다루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산업, 지역 기반 콘텐츠, 공연 기획, 관광 콘텐츠 등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까지 폭넓게 배우게 되었고, 콘텐츠라는 개념이 단순히 ‘보는 것’이나 ‘즐기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기대했던 부분과 실제 경험 사이에 차이는 분명 있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콘텐츠 산업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되었고, 진로 선택의 폭도 더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Q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은 실제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을 때였습니다. 단순히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겪은 실무 이야기나 산업의 흐름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들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수업이 더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저는 학과에 입학할 때 막연히 콘텐츠 제작 쪽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학과에서 진행되는 ‘토크콘서트’나 졸업생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문엔인의 밤’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산업 분야의 실무자 분들과 직접 이야기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분야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전공 수업도 단편적인 분야에만 치우치지 않고 게임, 공연, 관광, 마케팅 등 콘텐츠 산업을 다방면으로 다루고 있어서, 제 진로를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 전공을 선택할 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전공에서 추천하고 싶은 교과목이 있다면?

전공 수업 중에서 꼭 추천하고 싶은 과목은 ‘영상엔터테인먼트산업’입니다. 이 수업은 단순히 영상 콘텐츠를 감상하거나 분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영상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이해부터 실제 기획과 제작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이 수업의 강의를 현재도 방송 PD로 활동 중이신 이동원 교수님께서 직접 진행하시기 때문에, 방송 현장에서 직접 체득하신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들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방송 업계의 흐름, 제작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콘텐츠가 시청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여러 단계들을 생생하게 전달해주셔서 수업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부분은 영상 콘텐츠 기획서를 직접 작성해보는 과제였습니다. 단순히 과제를 제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께서 일대일로 피드백을 주시며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피드백은 다른 수업에서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매우 값진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영상 관련 진로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공 관련 활동]

Q 전공과 관련하여 참여한 활동(동아리, 공모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전공과 관련해 제가 참여한 활동 중 하나는 광고 연합 동아리인 ‘애드플래쉬’에서의 경험입니다. 학교 소속 동아리는 아니지만,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팀을 이뤄 실전 광고 기획을 함께 해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 수업에서 배운 이론들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보며, 기획안 구성부터 프레젠테이션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기들과 함께 ‘KOSAC(대한민국 대학생 광고경진대회)’와 같은 광고 관련 공모전에 참여한 경험도 있습니다.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시장 조사, 타겟 분석, 콘텐츠 콘셉트 도출 등 다양한 실무 역량이 요구

되었는데, 전공 수업만으로는 경험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직접 부딪히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광고 캠페인을 기획하면서 콘텐츠 산업이 창의성과 전략을 동시에 요구한다는 점을 깊이 체감할 수 있었고, 전공과 진로에 대한 확신도 더욱 커졌습니다.

저희 학과는 마케팅처럼 콘텐츠의 한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학과는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대외활동이나 공모전을 통해 관심 분야에 대한 경험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전공 수업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실무적인 부분들을 학습할 수 있기에,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Q 해당 전공과 관련한 경험 중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해당 전공과 관련된 경험 중에서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광고 연합 동아리 활동입니다. 요즘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는 학우분들이 많아지는 걸 느끼는데, 이 동아리에서는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광고 기획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획안 작성부터 타깃 분석, 프레젠테이션 준비까지 전 과정을 팀원들과 함께 해보면서 마케팅이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이 아니라 전략적인 사고와 팀워크를 요하는 일이라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학교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어 시야를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케팅, 광고, 콘텐츠 기획 등 실무에 관심 있는 학우분들에게는 정말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라 자신 있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한 마디]

제가 다니는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는 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도전해볼 수 있는 열린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콘텐츠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싶지만, 아직 어떤 분야가 자신에게 잘 맞는지 확신이 없는 학생들에게 더욱 추천하고 싶은 학과입니다. 다양한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해 폭넓게 배우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전공에서는 방송, 공연, 게임, 전시, 관광 등 여러 콘텐츠 산업을 아우르며 배우게 됩니다. 덕분에 다양한 분야를 직접 체험해보며 자신에게 맞는 진로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문화 전반에 대한 시야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공 수업이나 학과 행사 등을 통해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 소통할 기회가 자주 주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로 탐색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콘텐츠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로를 고민해보고 싶은 학생이라면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가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Q 내가 선택한 전공은 어떤 학생에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하나요?

호텔관광대학

글로벌Hospitality·관광학과

| 24학번 신해운

재학생 이야기

[전공 소개]

글로벌 리더십과 서비스 혁신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최근 ChatGPT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ICT 환경 변화로 글로벌 관광·호텔 산업의 서비스 혁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학부는 이에 발맞춰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인문, 사회, 콘텐츠, 기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다학제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모든 강의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21세기 글로벌Hospitality 및 관광 산업의 도전과 기회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능력과 글로벌 감각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공 선택 계기]

제가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명확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엔 호텔관광 분야보다는 언론인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언론인이 되려면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전공 선택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융합적으로 배우면서 동시에 여러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Hospitality 관련 전공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또 한 가지 개인적인 이유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편이라 전공 수업에서 외국인 친구들과의 소통을 통해 영어 실력을 꾸준히 키워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글로벌Hospitality 관광학과의 저에게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조언은 고등학교 친구와 담임 선생님이 해주었습니다. 수시 원서를 넣으면서 고민이 많았을 때, 한 친구가 제 성격과 관심사,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하면 이 학과가 잘 맞을 것 같다고 먼저 추천해 주었어요. 또 제가 고등학교 때 생기부의 내용이 영어와 관련이 많았는데, 담임 선생님도 '영어에 관심이 많으니까 글로벌한 학과에 지원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셨습니다.

저처럼 아직 진로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양한 전공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또는 영어에 자신이 있거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전공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학문 분야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글로벌 마인드'입니다. 모든 교육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며, 국제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필수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관광·호텔 산업에서 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적응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관심이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Q 간단히 본인의 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이 전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Q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조언은 무엇이었고, 누가 해주었나요?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전공 공부의 현실]

Q 전공 선택 전후로 기대했던 점과 실제 느낀 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전공을 선택하기 전과 후에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차이는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따라가기 쉽고 수업도 이해하기 편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호텔관광 분야의 내용을 전혀 모른 채로 이 학과에 입학해서,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울까 봐 많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업을 들어보니 교수님들이 정말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따라가기에 전혀 부담이 없었고, 오히려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돼서 영어 실력이 부족하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요. 교수님들이 쉬운 영어로 설명해주시고, 필요할 때는 한국어로도 잘 도와주셔서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수업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제가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낀 순간은 학과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즐거운 학교생활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물론 학과에서 배우는 학업적인 내용도 매우 만족스럽지만, 그 이상으로 학과 생활 자체가 정말 즐겁고 재밌어요. 우리 학과는 다른 학과에 비해 소수 정예로 이루어져 있어서 모든 학생들이 서로 잘 알고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마치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함께 자주 놀러 다니고 회식도 자주 하면서 끈끈한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학과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공모전이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도 경쟁이 거의 없어서,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혜택과 기회가 정말 많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새로운 학과에 들어와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좋은 친구를 사귄다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을 거라는 걸 잘 압니다. 우리 학과는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학과이기에, 여러분이 우리 학과에 들어온다면 금방 친구들과 친해지고 잘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한 마디]

Q 내가 선택한 전공은 어떤 학생에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하나요?

글로벌 환경과 문화 간 소통에 흥미가 있고, 새로운 사람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고객과의 상호 작용을 즐기는 학생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통해 서비스 혁신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싶은 학생, 그리고 글로벌 리더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학생에게 매우 잘 맞는 전공입니다.

이과대학 수학과

재학생
이야기

21학번 전구 언

[전공 소개]

고등 수학과 달리 수학이라는 학문의 원론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계산이 주 내용이 아닌 벡터, 행렬, 미분과 적분 등 다양한 수학적 정의와 정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되었는지,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배웁니다.

[전공 선택 계기]

수학이란 학문이 가지는 논리성이 마음에 들었고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일관된다는 특성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수학 교사를 하고 싶어 수학을 전문적으로 더 배우고 나중에 학생들에게 더 좋은 설명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수학교사가 꿈이라고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수학교육과도 물론 좋지만 수학과에 진학하여 수학교사라는 직업에 국한되지 않고 더 다양한 진로를 고민해보며 수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어떨까하는 조언이 전공 선택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오랜 기간동안 접하고 학습해야할 내용을 전공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고려사항은 흥미와 적합도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취업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면 대학을 다니면서도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관련 분야로 취업을 하더라도 금방 다른 분야의 직업을 바꾸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전공 공부의 현실]

고등 수학만을 접하다 대학교에 진학한 뒤 순수학문으로서 수학을 배우게 되니 처음에는 어색하고 완전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계산이 아닌 기본 개념에 대한 고찰과 증명, 연습문제로의 적용까지 어색했지만 전문적인 수학을 배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설명해주는 대로 이해하기만 했던 고등수학과 달리 배경과 유래, 논리의 구성 방법들을 배우며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층 심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학 학원에 선생님이 아르바이트하면서 대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응용하여 학생들에게 더 쉽게 설명해준 경우가 있었는데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제 성격이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 전공을 배우면서 이건 그냥 암기하세요가 아닌 이런 과정과 이유로 인해 결과가 이렇습니다라는 방법으로 배울 수 있어서 전공을 저와 맞게 잘 선택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수치해석이라는 과목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수치해석은 코딩을 통해 복잡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거나 미분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풀어내는 방법과 과정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수치해석을 응용하여 데이터 근사(손상된 이미지 파일 복구, 의료 영상 처리 등)를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Q 간단히 본인의 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이 전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Q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조언은 무엇이었는지, 누가 해주었나요?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Q 전공 선택 전후로 기대했던 점과 실제 느낀 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Q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Q 전공에서 추천하고 싶은 과목이 있다면?

이외에도 수학의 다양한 개념들이 어떠한 논리적 사고와 과정으로 발전하게 되었는지를 차근차근 알아가는 해석학도 추천합니다. 추가로 행렬을 이용하여 정말 복잡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우는 선형대수학이라는 과목도 들어본다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 관련된 분야에 연구 관심이 생긴다면 교수님과 1학기동안 연구할 수 있는 독립심화학습이라는 과목도 들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전공 관련 활동]

Q 전공과 관련하여 참여한 활동(동아리, 공모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다른 학우들과 전공스터디 활동을 통해 같이 모르는 문제들을 고민해보고 서로 알려주며 수학적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수학과 동아리 '수학사랑'에서도 스터디를 진행하며 후배들에게 제가 이미 들었던 전공 내용을 설명해주었습니다.

Q 해당 전공과 관련한 경험 중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비록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학우들이 경험했던 것들 중에 추천은 몇 가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희대학교 수학과 교수님들 중 세계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계셔서 매년 강연회가 열리는데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혹은 대학생 수학경시대회에 나가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한 마디]

Q 내가 선택한 전공은 어떤 학생에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하나요?

먼저 당연하게도 수학에 대한 흥미는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게 기본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에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숫자 계산을 좋아하거나 추상적 사고와 논리적 증명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을만한 환경인 거 같아요. 논리를 좋아하거나 무언가를 분석하고 끈기있게 파고드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에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과대학

물리학과

| 22학번 최혜령

재학생 이야기

[전공 소개]

물리학과에서는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아주 작은 미시적인 입자부터 거대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자연현상의 원리 현상을 예측하고 탐구합니다. 단순히 현상을 기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왜 일어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탐구하기 때문에 다양한 응용 분야로도 연결됩니다. 먼저 물리학과 4대 역학인 역학, 전자기학, 양자역학, 열통계물리학을 배우고, 이후 심화 분야 과목으로 나아갑니다. 우주론 및 입자물리, 응집물리, 반도체, 빅데이터, 계산물리 등 자신의 관심 분야에 맞는 심화 과목을 선택해 보다 깊이 있는 탐구를 이어갑니다.

[전공 선택 계기]

어렸을 때 주말 저녁마다 엄마 아빠의 손을 꼭 잡고 가던 대전 천문대에서의 추억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던 것 같아요. 저 멀리 있는 별과 행성들을 관측할 수 있다는 것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별이 신기했다기 보다는 무언가를 관측한다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물리학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물리학이 새로운 시선과 방법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창의적인 학문이라는 점에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읽는데,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관점의 학문이 정립되기까지 끊임없이 수정되고 확장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물리학과에 가서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꼭 배우 봐야겠다고 생각했고, 물리학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더라.”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물리학과를 가겠다고 하면 “졸업해서 뭐 먹고 살거니?” 라는 질문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주변 사람들이 자연과학과 같은 순수 학문은 돈이 안된다고 가지말라고 저를 말렸어요.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아 마음이 복잡했던 시기에, 담임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돈보다 나에게 가치있는 게 뭘까? 그리고 내 마음을 설레게하고, 나를 진짜 움직이게 하는 일을 선택해야겠다고 결심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에게 무조건 맞는 전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종종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전공을 찾아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물리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지만, 물리학은 항상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했을 때, 문제가 해결될 때 즐거움을 느껴요. 제가 찾는 물리학이 주는 즐거움은 그거였어요. 그 즐거움이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어려움보다 크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시도해보고, 그 중에 내가 그래도 이걸 정말 할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나에게 잘 맞는 학문이 아닐까요?

[전공 공부의 현실]

고등학교 때 물리학 관련 책을 읽으면서, 특히 슈뢰딩거의 고양이 가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대학교 양자역학 수업에서 이런 흥미로운 현상들에 대해 토론하고 이야기 나눌 것이라고 기대하며 물리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진학하고 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물론 교수님께서 흥미로운 주제를 던져주시고 생

Q 간단히 본인의 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이 전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Q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조언은 무엇이었으며, 누가 해주었나요?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Q 전공 선택 전후로 기대했던 점과 실제 느낀 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각해볼 시간을 주시지만, 토론이나 이야기보다는 수학적으로 원리를 깊이 탐구하고, 불확정성 원리, 스핀, 수소 원자 등을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수학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더 중점으로 배웠습니다. 기대와는 조금 달랐지만 오히려 저는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수식을 유도하여 고전역학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Q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전공 수업에서 어려운 문제를 수식으로 풀어내고, 그 물리적 의미가 현상과 맞아떨어질 때 물리학이 재밌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양자역학 문제를 풀면서 양자역학의 물리량으로 고전역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릴 적 느꼈던 호기심이 양자역학 이론으로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시세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까지 수식으로 연결하고, 그 속에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나에게 잘 맞다는 걸 확인했을 때 물리학과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전공에서 추천하고 싶은 교과목이 있다면?

2학년 전공 수업 수리물리학을 추천합니다. 푸리에 급수를 처음 배우는데, 수식이 잔뜩 있는 걸 보고 책을 덮어버렸던 기억이 있는데, 공부를 하다보니 그 안에 담긴 물리적 의미가 흥미로웠습니다. 푸리에 급수의 핵심은 좌표축(기저)을 sin과 cos으로 바꿔서 함수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주기함수도 결국 sin함수로 이루어져 있고, 내적으로 그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수학적 개념을 통해 복잡한 현상을 쉽게 설명하는 물리학의 유연함과 창의성을 경험한 순간이었어요. 물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수학적 언어를 도입하고, 수학이라는 언어로 자연을 이해해 나간다는 점은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리물리학은 물리학의 유연함과 창의성, 수학적 아름다움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수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공 관련 활동]

Q 전공과 관련하여 참여한 활동(동아리, 공모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물리학과에는 전공과 관련해서 학술동아리, 트랙활동, 학부생 인턴십 프로그램, 콜로퀴엄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저는 학부생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이차원물질 샘플을 만들고 광학적, 전기적 특성을 관측하고 분석함으로써 실제 연구에서는 이론이 어떻게 연결되고 응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리학과에서는 선후배간, 동급배간 학문적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단짝친구 프로그램 참여해서 학과 친구와 함께 매주 만나서 파이썬을 공부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구현했습니다. 올해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에서 전공 공부와 학교 생활에 대한 조언을 주는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하계 전공 연수로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열린 'Quantum + Chips' 프로그램에 참여해 양자컴퓨팅을 공부하고,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과 물리학을 주제로 토론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물리학과에는 다양한 전공 활동이 마련되어 있어, 여러 활동에 참여하며, 가장 흥미를 느끼는 심화 분야를 탐색하는 중입니다.

Q 해당 전공과 관련한 경험 중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먼저 학부연구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학부연구 인턴십을 신청하면, 물리학과 내 연구실에 들어가서 8주동안 학부생으로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물리학이 실제 연구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배우고, 다양한 분야를 직접 연구함으로써 원하는 심화 전공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대학원은 어떤 곳인지 맞볼 수도 있었습니다.

멘티-멘토 프로그램도 1,2학년에게 추천합니다. 멘티-멘토 프로그램은 3,4학년 멘토가 1,2학년 멘티에게 학습, 진로 가이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전공과 관련한 학습 질문 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진로 등 다양하게 멘토에게 질문하고, 선배와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1,2학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멘토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1,2학년 때 저와 같은 멘토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Q 내가 선택한 전공은 어떤 학생에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하나요?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한 마디]

크게 두 부류의 학생에게 물리학과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탐구하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입니다. 기술이 한계에 부딪히면, 물리학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고찰하고 새로운 방법을 탐구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물리학과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 무엇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는 학생입니다. 물리학과는 자연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탐구하고 배우기 때문에 기초부터 응용까지 다룹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를 배우고 이후에 심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물리학과 진학이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과대학 화학과

재학생
이야기

21학번 강석환

[전공 소개]

Q 간단히 본인의 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이 전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화학은 세상의 모든 물질과 그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학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약, 플라스틱, 배터리까지 모든 물질의 시작과 끝엔 화학이 있어요.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 소재와 관련된 유기화학, 금속이나 광물 등 다양한 무기 화합물의 성질을 연구하는 무기화학, 이론으로 배운 개념을 실제로 확인하고 응용하는 시간인 실험 수업까지,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화학은 단순한 공부를 넘어, 세상을 구성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뜻깊은 학문이에요.

[전공 선택 계기]

Q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엔 진로에 확신이 없어서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예전부터 화학에 흥미가 있었고, 좋아하는 과목을 전공으로 선택해보자는 마음으로 화학과에 오게 되었어요.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화학에 대해 배우며 화학은 이론과 실험이 잘 어우러진 학문이고, 다양한 분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조언은 무엇이었고, 누가 해주었나요?

"좋아하는 걸 해봐, 잘할 수 있을 걸?"
제가 고등학교 재학 기간동안 가장 좋아하고, 존경했던 선생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에요. 진로를 갑자기 바꾸게 되어 방향하던 저에게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것을 얼마나 즐길 수 있느냐"라는 조언이 오랫동안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화학이 좋다"라는 마음 하나로 화학과에 오게 되었어요.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자신의 '관심'과 '의문'이 자주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공은 단순히 1-2년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진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흥미가 없다면 오래 버티기 힘들어요. "내가 이걸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학문이라면, 그게 정답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공 공부의 현실]

Q 전공 선택 전후로 기대했던 점과 실제 느낀 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처음에는 화학과 전공 수업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조금 더 깊어진 정도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보니 훨씬 더 복잡하고, 수식도 많고, 실험도 어려운 학문이었어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배울수록 눈에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고, 세상을 다르게 이해하게 되는 재미가 생겼어요. 지금은 이 어려움이 화학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Q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본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소주잔 위에 맺힌 물방울을 보고, 표면장력(Surface tension)에 대해 설명해준 적이 있어요. "분자 간 인력이 액체의 표면을 최소화하려는 힘"이라는 걸 말해주자, 친구들이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인 적이 있어요. 그 순간 내가 배운 내용을 일상 속 상황에 연결해서 설명해줄 수 있다는

점이 뿌듯했고, '화학을 전공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학의 가장 큰 매력은, 일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준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Q 전공에서 추천하고 싶은 교과목이 있다면?

유기화학1을 추천하고 싶어요! 유기화학은 생명체를 이루는 탄소 기반 화합물을 다루는 학문으로, 주로 약, 플라스틱, 화장품 등 실생활과 연결된 내용이 많아서 흥미롭게 배울 수 있어요. 반응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단순히 암기가 아닌, 논리적으로 화학 반응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힘이 생겨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배우다 보면 퍼즐 맞추듯 반응이 이해되는 재미가 있어요.

Q 내가 선택한 전공은 어떤 학생에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하나요?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한 마디]

화학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를 파고들고, 그걸 실험과 데이터로 확인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에게 잘 맞을 거 같아요. 특히, "왜 그럴까?"하는 궁금증이 많은 사람,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실험을 통해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걸 흥미롭게 느끼는 사람, 장기적으로 약학, 재료, 환경, 교육 등 다양한 진로를 고민 중인 사람에게 추천해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이해해가는 과정 자체에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분명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과대학 생물학과

21학번 배호연

재학생
이야기

[전공 소개]

Q 간단히 본인의 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이 전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생물학의 전반적인 분야를 모두 다룬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생물학의 범주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자연 및 생명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유기적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를 위하여 생물학과에서는 생물학에 대한 대부분의 분야를 배울 수 있으며, 그 속에서 본인이 원하는 분야를 찾아가는 과정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전공 과목들을 나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모든 생명체에 대하여 매우 거대한 단위부터 아주 작은 분자 단위까지 그 전부를 알아갈 수 있는 학문임에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정밀한 기계장치가 돌아가듯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생물학은 그에 대한 충분한 답을 배울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 선택 계기]

Q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사실 생물학에 대하여 꽤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을 늦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생물학과를 선택함에는 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생물학도로서 배워가는 것들이 다른 학문들과는 그 이해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수학은 숫자와 그 상호작용을, 물리는 힘의 관계를 기반으로 자연현상을 이해하며, 화학은 분자단위 작게는 원자까지 범위를 좁혀 그들의 상호작용을 탐구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은 그 전부를 포괄하는 범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생명의 안에서 분자부터,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분자와 숫자, 그 개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모두 배울 수 있기에 저는 생물학과를 선택했습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조언은 무엇이었고, 누가 해주었나요?

제가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말은 조언이라기 보다도, 제가 생명과학을 좋아하고 있음을 일깨워주신 선생님의 한 마디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때처럼 실험실에 있던 날 생명과학 선생님께서 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의 한 마디는 본인이 생명과학 선생님이로 있으면서 가장 즐겁게 연구하는 학생인 것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기 이전의 저는 그저 별 생각없이 손이 가는대로 무언갈 의미 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후 '내가 정말 생물학을 재미있어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시 몸이 가는 곳이 마음이 가는 곳이었듯 저는 생물학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아무생각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생물학에 임하게 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조언보다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생물학과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졸업한 학교와 함께 평생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며, 젊은 청춘의 시간을 소모하여 일생동안 자신이 걸어갈 길의 초석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항상 인생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을 때 '내가 하고싶은 것'에 집중해왔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기초는 전공선택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은 위에서 말했듯 어쩌면 본인의 인생이 뻗어나갈 큰 기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생을 살며 자신이 하고 싶지 않았던 전공을 배워 그것으로 자신의 일생을 채워나간다면 그것만큼 힘든 삶도 없을 것이라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전공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사항은 내가 무엇이 하고싶은지, 어느 길이 가고 싶은지를 생각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 공부의 현실]

Q 전공 선택 전후로 기대했던 점과 실제 느낀 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사실 저의 경우는 일반고가 아닌 곳을 다녔기에 고등학교 시절부터 심화된 공부를 하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 고등학교 3년의 생활은 전부 생물학 실험실에서의 기억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공대가 아닌 자연대에 온 제일 큰 이유로 제가 좋아하는 생물학 분야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생물학과에 입학 후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학부생 시절에는 연구에 직접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배경지식이나 견문이 넓지 않기에 그럴겠지만 저에게는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다가왔습니다. 학부에 들어오니 고등학교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미약한 양의 실험들만을 진행하다보니 1학년 시절에는 실망감에 조금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며 학부 연구생, 연구실 인턴 등 기회가 열리며 제가 부족하다 느꼈던 부분은 충분히 채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Q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전공 수업을 듣다보면 정말 몰입하게 되면서 상식 유튜브 채널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궁금하지 않았던 것들도 수업을 듣고 있다보면 내가 너무나도 궁금했던 부분을 굶어주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우리 삶에 제일 밀접한 학문이기때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생각이 들 때마다 생물학에 대한 애정이 더욱 생기는 것 같습니다.

Q 전공에서 추천하고 싶은 교과목이 있다면?

교수님들이 강의력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있지만,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교과목은 정용석 교수님의 바이러스학 강의입니다. 생물학과에서 가장 오래 계셨던 교수님이신지라 생물학과 내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생물학도로서 제일 발자취를 많이 남기신 분이기도 합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강의는 물론이며 생물학도예의 시야를 넓혀주시는 강의를 하시기에 바이러스학을 제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공 관련 활동]

Q 전공과 관련하여 참여한 활동(동아리, 공모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동아리나 공모전은 없지만 생물학과에 재학중인 사람으로서 생물학과와 과동아리들은 어느 동아리들과 놓아도 정말 탄탄한 동아리들입니다. 그중 특히 생물학과 학술동아리 CELL의 활동이 제일 깊이가 있습니다. 각 분야에 대해 분과가 나뉘어 있어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나 논문등에 대하여 깊이를 쌓는 것은 물론 동아리 내의 수요증도 발급되어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의 포트폴리오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동아리입니다. 저 또한 내년부터 CELL 활동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Q 해당 전공과 관련한 경험 중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저는 학부연구생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대학원을 가려는 학생이 아니어도 학부연구생은 그 경험의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이 얼마나 열정을 쏟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학부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학생에게도 한 가지의 경험과 견문으로서 어필할 수 있고, 대학원을 원하는 학생이라면 더더욱 본인이 좋아하는 세부 분야와 그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기에 제일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수님들의 특성상 한 분야에서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온 경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더욱 열려계시기에 대학원 입시에서도 학부연구생 경력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한 마디]

Q 내가 선택한 전공은 어떤 학생에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하나요?

어떤 학생이라기 보다도 그저 생물학에 대한 흥미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이라는 것이 본래 사람의 성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도 할뿐더러 그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그 길이라면 사람의 유형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생물학에는 각 분야마다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는 것도, 실험장비들을 매일 만지는 것도, 심지어 전공을 돌아다니며 연구를 하는 분야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생물학과를 나오면 무조건 연구와 공부만 하며 박사과정까지 가야하는 것도 아니며, 졸업 후에 전공을 굳이 살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선택한 전공이라면 그 시간동안의 후회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분야보다 생물학에 조금이라도 더 흥미가 있다면 그런 학생들에게 생물학과는 학부생 시절을 누구보다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이과대학

지리학과

졸업생 이야기

17학번 임아영

Q 간단히 본인의 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이 전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전공 소개]

지리학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자연, 인문적 현상을 통합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경제나 교통, 문화, 정치 같은 현상들이 공간상에서 어떻게 분포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발전되어 가는지를 연구합니다. 특히, 현대 지리학에서는 GIS(Geographical Information Science)를 활용해 방대한 공간 데이터를 수집, 관리, 분석하고, 지도의 형태로 시각화합니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 도시 성장, 재해 예방, 지속 가능한 공간 계획 등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리학을 배우으로써 '어떤 현상이 어디서, 왜 일어나는가'를 공간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역량을 기르게 됩니다.

[전공 선택 계기]

Q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지리 수업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토대로 '자연재해와 인간생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식생이 풍부한 지역과 도시화된 지역의 빗물 흡수 능력을 비교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 지역의 홍수 피해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지역개발, 도시화 등 과거에 인간의 편의를 위해 진행했던 개발이 미래에 오히려 인간에게 해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인간의 활동과 자연환경 간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어 지리학과로 진학하였습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조언은 무엇이었는지, 누가 해주었나요?

제가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큰 도움을 준 분은 고등학교 지리 선생님이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즐기면서 공부해야 꾸준히 해나갈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셨고, 특히 '자연과 인간 활동 간 관계를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은 지리학이다'는 말씀은 제 진로 고민에 큰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조언 덕분에 저는 자연적, 인문적 현상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지리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내가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주제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공부해야 하는 만큼, 호기심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적성과 강점을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후 변화 및 영향을 정량적으로 살펴보는 데 흥미와 소질이 있었기에 지리학이 잘 맞았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 지식이 앞으로의 진로 목표와 얼마나 연결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공 공부의 현실]

Q 전공 선택 전후로 기대했던 점과 실제 느낀 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는 지리학이 이론 중심의 학문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 원격탐사, 기후 모델링, 각종 데이터를 활용한 시공간적 분석 기법 등 실용적인 연구 방법론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후학 관련 수업에서는 단순한 기온, 강수량 등의 관측을 넘어 사용자 친화적 기후자료분석 기법을 직접 시행해 보거나, 여러 변수 간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해 보는 프로젝트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지리학이라는 학문의 실용성과 연구의 전문성을 기대 이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Q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해서 전공을 잘 선택했다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석사과정으로 재학하면서 '일반 기후학', '몬순기후학', '응용기후학' 등 기후학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이를 토대로 '기후통계 분석' 강의를 수강하며 기후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였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 결과, 남한의 계절 정의 개선 및 미래 계절 예측에 관한 논문을 SCIE급 저널에 제1 저자로 게재하였습니다. 이때, 지리학 전공이 제 연구 관심 분야와 잘 맞고, 호기심을 지속되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Q 전공에서 추천하고 싶은 교과목이 있다면?

제 관심사가 인간의 활동, 기후, 자연환경이라서.. 지리학과와 '기후변화와도시의미래' 및 '기후자료분석' 강의를 추천합니다. 먼저, '기후변화와도시의미래'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인 기후변화를 정의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규명하기 위해, 산업혁명 이후 현재까지의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또한 미래 기후변화 전망을 이해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이렇게 이론적 지식을 습득 한 후, '기후자료분석' 강의를 통해 기후자료분석 기법을 습득함으로써 우리나라, 동아시아, 전 세계의 다양한 기후 현상들을 분석하고, 직접 기후 현상을 연구하여 발표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공 관련 활동]

Q 전공과 관련하여 참여한 활동(동아리, 공모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저는 NGO 환경단체 '푸른아시아'에서 그린리포터로서 시민들에게 기후 위기, 환경 변화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서포터즈 활동 시작 전, 교육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 이상기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Q 해당 전공과 관련한 경험 중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학부 과정 중에 여러 강의를 수강하며 이론적 지식을 쌓은 다음,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학부연구생으로서 직접 연구에 참여하는 경험을 가장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리학과 기후융합프로세스 연구실의 학부연구생으로 기상청 과제에 직접 참여하며 '우리나라 계절길이 변화 분석 및 동아시아 지역 토지 피복 및 토지이용 변화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웹사이트의 분석 기법 중 계절길이 툴을 새로 추가하게 되었고, 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제1저자로서 SCIE급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직접 진행해본다면, 자신의 적성과 강점을 찾아가볼 수 있습니다.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한 마디]

Q 내가 선택한 전공은 어떤 학생에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하나요?

저는 공간과 현상의 연결고리를 호기심 있게 탐구하고, 데이터 분석 및 코딩을 활용하는 데 흥미를 느끼는 학생이라면 지리학 전공이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자연적 및 인문적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통계, 프로그래밍 기법을 배우고, 현장 답사를 진행하면서 직접 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을 즐길 수 있다면 이 분야에서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졸업생 추가 질문]

Q 전공이 실제 사회생활이나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제가 아직 사회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대학원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부 과정 동안 지리학 관련 이론, 데이터 분석, GIS 및 통계 기법을 체계적으로 배운 덕분에 학술 세미나나 연구실 프로젝트 수행 시 교수님 및 연구실 멤버들과의 교류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SCIE 및 SSCI급 저널 논문 투고 과정을 통해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해석하고 시각화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 덕분에 연구 결과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과정을 소개해주세요.

지리학과를 다니면서 제 관심사인 인간의 활동, 기후, 자연환경에 관해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쌓고자, '기후학', '기후자료분석', '기후변화와도시의미래', '토양지리학' 등 관련 수업을 수강하며 공부하였습니다. 특히, '기후자료분석' 강의를 수강하며 과거 기후변화를 분석하는 실습을 통해 지역 간 평

균 기온 차이를 직접 분석해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점을 직접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에 흥미를 느껴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하였습니다. 석사과정으로 재학하면서 ‘일반기후학’, ‘몬순기후학’, ‘응용기후학’ 등 기후학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공부하여 연구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후통계분석’ 강의를 수강하며 기후 데이터를 통계적,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였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 결과, 남한의 계절 정의 개선 및 미래 계절 예측에 관한 논문을 SCIE급 저널에 제1 저자로 게재하였고, 동아시아 몬순지역의 토지피복 전이와 기온 변화에 관한 논문을 SSCI급 저널에 제1 저자로 투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이전에 느꼈던 연구 한계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하고, 전문성을 가지는 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Q 후배들에게 실무 또는 진로와 관련된 조언을 해준다면?

지리학과에 온다면 ‘이론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직접 다뤄보는 경험을 최대한 쌓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강의를 수강하며 배운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처리 및 통계 기법을 습득한 경험이 대학원 진학과 연구 역량 강화에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를 여러 학술 세미나 및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함으로써 학술적 소통 능력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발표 기회를 통해 분석부터 결과 전달까지의 전 과정을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 23학번 임하경

재학생 이야기

[전공 소개]

아동가족학과는 아동의 발달과 가족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의 삶과 성장에 대해 다각도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의 지식을 바탕으로 아동과 가족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동가족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아동의 발달 단계와 특성 이해, 가족의 역할과 변화, 가족 관계 분석, 보육과 아동복지, 놀이치료, 부모교육, 다양한 생애주기(영유아기~노년기)의 가족 이슈 탐색 등등이 있습니다. 아동가족학과를 졸업하면 보육교사, 아동상담사, 가족상담사, 사회복지기관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 지도사, 다문화가족 관련 전문가, 대학원 진학 후 연구자나 교수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Q 간단히 본인의 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이 전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저는 원래 예술고등학교를 다니며 영화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영화 <아무도 모른다> 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고, 영화 속 아동학대와 방임을 받는 유아를 보며 그들을 직접적으로 돕고 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학과 가족학, 사회복지, 상담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양한 전공과 학과를 알아보던 중, 아동학부터 노년학까지의 생애주기, 상담심리, 사회복지 등등 다양한 인간에 관한 분야를 다루는 아동가족학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동가족학과에 다니면서 전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아동학대전담공무원되어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Q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가장 큰 고민은 예술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의 특성과 전혀 맞지 않는 인문계 계열의학과를 진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술고등학교에서는 학문적인 공부보다는 실기 위주의 공부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수능공부를 하거나 생활기록부에 기재할만한 활동을 할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이때 고등학교 사회문화 담당 선생님께서 직접 수능공부반을 만들어서 수능 준비를 도와주셨고, 각종 생기부를 채우기 위한 활동들을 제안해주시고 쓸 수 있도록 지원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 선생님께서는 “너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고등학교가 오히려 남들보다 특출되는 차별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조언은 무엇이었으며, 누가 해주었나요?

이런 조언 덕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불안감을 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의 문제점이나,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점이 장점이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고 지금까지도 힘든 시기가 되면 혼자서 되새기는 말이 되었습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저는 전공을 선택할 때 자신의 적성과 가장 잘 맞는 일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는 단순히 취업이 잘된다는 이유, 또는 자신의 성적에 맞는 가장 높은 수준의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전공을 선택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많은 친구들이 전공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수업 자체를 고통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전과를 하거나 복수전공을 선택하는 등 전공을 살리는 진로를 택하지 않았고, 대부분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돈을 잘 버는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공인지, 취업이 잘 되는 전공인지, 성적에 맞는 학교인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공에 대한 흥미와 적성과의 궁합입니다. 이러한 기본이 충족되어야만 전공 공부에 재미를 느끼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공 공부의 현실]

Q 전공 선택 전후로 기대했던 점과 실제 느낀 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전공을 선택하면서 처음부터 실습 위주의 활동이 많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아교육과정처럼 만들기 활동이나 수업 시연, 악기 수업 등을 위주로 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에 반해 아동가족학과는 좀 더 이론 위주의 수업을 듣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점이 아쉽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저학년 때 이론으로 탄탄하게 지식을 쌓고, 고학년에 갈수록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배움으로써, 실제로 아이들을 돌보고 관련된 기관에서 실습할 때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너무 어려운 존재라고 느꼈던 유아를 이론을 적용하여 직접 돌봐주고 함께 놀이를 하면서 서로 간 긍정적인 관계가 되었을 때 매우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처음 낯을 가린 유아가 이후 저를 굉장히 잘 따르고 좋아하며 마지막 헤어지는 날에는 모든 아이들이 아쉽다고 서운해하기도 했었는데, 아이들의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로서 제가 긍정적인 기능을 했다고 생각하여 아동가족학과에 재학하길 잘 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Q 전공에서 추천하고 싶은 교과목이 있다면?

“언어지도”라는 교과목이 있는데 유아의 언어발달, 그림책, 동화책 등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유아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교육 방식 등등에 대한 논문을 읽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수업과 마지막으로는 직접 유아를 위한 그림책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논문을 읽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유아의 언어 발달과 교육에 대한 갈피를 찾고,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할만한 실용적인 내용들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직접 그림책을 그려보며 유아를 위한 아이디어 고안부터 그림과 색칠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을 동시에 경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공 관련 활동]

Q 전공과 관련하여 참여한 활동(동아리, 공모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과동아리로 “에그리나”와 “블링블링”이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에그리나는 지역기관과 연계하여 유아에게 책을 읽어주고 책과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특정 주제를 잡고 같이 탐구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블링블링(현 유즈)은 동대문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서전을 만들어 드리는 자서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블링블링은 현재 유즈로 개편되어, 자립 준비 청년을 돕는 활동을 기획 중이며 이 외에도 노인,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을 돕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동대문 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다문화 아동 1:1 멘토링 프로그램에 현재 참여 중에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글, 수학, 영어 등 다양한 학습을 도와주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한국에 적응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정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해당 전공과 관련한 경험 중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을 좋아하신다면 유아들과 책을 읽고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 활동은 유아와 함께 하는 활동으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유아의 창의력과 상상력에 감탄하는 경험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서 할 책 선정부터 관련된 활동까지 직접 고안함으로써 전공적인 역량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족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나 자립 준비 청년, 자서전 사업 등의 다양한 가족 지원 활동을 추천합니다. 그들과 1대1로 대화를 나뉘보며, 어쩌면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편견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실현함으로써 관련된 전공적인 역량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한 마디]

Q 내가 선택한 전공은 어떤 학생에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하나요?

10. 내가 선택한 전공은 어떤 학생에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하나요?

아이를 좋아하고 돌보는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 가족 문제나 인간관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 교육이나 상담심리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사람, 사회복지나 지역사회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심리, 발달, 인간행동 등에 흥미가 있는 사람 등등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고 복지활동, 심리체계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

재학생
이야기

| 22학번 이다은

Q 간단히 본인의 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이 전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전공 소개]

주거환경학과에서는 2년간 공통 과정을 거친 후에 관리 트랙과 디자인 트랙으로 나뉘어 학습하게 됩니다. 공통 과정에서 다루는 것은 3가지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주거환경 분야와 관련된 지식 습득(ex.주거학, 주택설계론), (2) 설계 프로젝트(ex.주거공간디자인) 주도, (3) 설계 시 필요한 툴(ex. 제도, CAD, BIM기술 등) 학습. 이와 같이 종합적인 학습 과정을 거쳐 본인에게 맞는 분야를 파악하고 트랙을 선택하게 됩니다.

관리 트랙에서는 주거시설관리, 주택정책, 주거자산관리 등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며 더 나아가 주거환경 현안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디자인 트랙에서는 설계 수업을 통해 '업무·주거·상업' 기능을 담은 공간을 설계합니다. [특수주거디자인]에서는 특히 주거 공간을, [가구 및 실내 코디네이션] 및 [브랜드와 디자인전략]에서는 상업 공간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공간을 직접 설계하는 과정에서 툴 활용력을 기르고, 표현력, 건축적 사고력 등의 역량을 강화하게 됩니다.

[전공 선택 계기]

Q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학교 3학년 때 TV를 보다가 우연히 '공간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로는 전혀 관심이 없던 분야이기에 마냥 새로운 직업이라고 느껴졌으나 이상하게 꽂히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유독 카페에 가고,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했고, 만드는 일을 잘해 솜씨가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특히 카페)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해당 분야를 들여다보며 관심이 확장되었습니다. 직접 공간을 설계할 수 있는 학과에 가야겠다는 확신이 생겼고 그때의 확고한 결심이 지금의 학과로 이끌었습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조언은 무엇이었고, 누가 해주었나요?

부모님께서 항상 '하고 싶으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온전히 저의 마음이 가는 대로 중학생 때부터 생각해 온 분야로 꿈을 이어 나갔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은, 결정권이 저에게 있다는 점에서 완벽한 '자유'이자 모든 책임이 따른다는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한 덕분에 해당 학과에 온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계속해서 꿈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디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이야기 하는 '취미와 특기'를 기반으로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 본 후,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커리큘럼을 자세히 살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무엇을 배우는지 파악하고, 내가 하고 싶은 방향과 일치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일치한 수업이 있다면 해당 전공을 선택해도 좋을 것입니다. 만약 커리큘럼을 보면서 심장이 뛰는 경험을 한다면 분명 후회 없는 선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Q 전공 선택 전후로 기대했던 점과 실제 느낀 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Q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Q 전공에서 추천하고 싶은 교과목이 있다면?

Q 전공과 관련하여 참여한 활동(동아리, 공모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Q 해당 전공과 관련한 경험 중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전공 공부의 현실]

저는 상업 공간 디자인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주거환경학과에 지원할 당시의 커리큘럼을 봤을 때 [가구 및 실내코디네이션], [브랜드와 디자인전략]과 같은 단어들에 저를 끌어당겼죠. 그러나 막상 와서 '주거환경학과'라는 이름대로 주거 관련 프로젝트를 먼저 하다 보니 흥미가 덜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조직에 가든 제가 하는 것에 따라 느끼는 바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더 큰 기회를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커리큘럼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저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고, 그 과정들은 모두 현재의 거름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헤맨 만큼 내 땅이다'라는 말에 매우 공감하죠.

'지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휴학을 하며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학과에서 상업 공간, 주거 공간, 인간중심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룬 것이 제가 '공간 관련 분야'에 대해 더 폭넓게 생각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다양한 영역을 접하며 고민하는 과정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주체적으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거환경학과에 왔는데 내가 왜 상업 공간을 디자인해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거공간도, 상업공간도 다뤄보는 것이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이고, 맞지 않는 게 무엇인지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걸 배우고 느끼게 해준 것이 [공동주거디자인] 수업입니다. 노후 저층 주거단지 대지에 공동주택을 설계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프로젝트 중 가장 규모가 있는 만큼, 주거 공간에 더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해 고민해 보는 과정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설계 프로젝트의 A부터 Z까지 소화하며 능력치를 가장 많이 끌어올릴 수 있었던 수업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 팀이 되어 소통하고, 그 안에서 내 의견을 주장하는 등의 행위가 설계 역량을 넘어 한 명의 인격체로서 더 단단한 마인드를 가지도록 이끌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설계 역량을 갖추고 동시에, 아이디어를 실현 시키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얽히고 풀어나가는 과정을 배울 수 있었던 해당 수업을 추천합니다.

[전공 관련 활동]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에 참여하여 입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동주거디자인] 수업 직후 방학에 임했던 활동이기에 배운 것을 바로 적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 좋았습니다. 설계 프로젝트에서 어떤 식으로 결과물을 도출하는지 궁금하실 경우, LH 공식 홈페이지 [제 28회 주택건축대전 수상작 목록]에서 작품을 열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명: 용인여가)

또한, 주거환경학과 디자인 트랙 동아리인 스페셜리스트(Spatialist)의 공동대표로 1년 동안 동아리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했습니다. 부원들과 함께 공간 트렌드를 분석하고, 공간에 방문하여 답사를 진행하였으며 직접 찍은 공간 사진으로 공간 사진 전시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관심사와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모여 교류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최대한 많이 보고,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마주치는 '사소하지만 인상을 준 것'은 모두 기록해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일상 속 인상'들이 쌓여 설계 아이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행: 특히 해외여행을 갔을 때 도시를 둘러보며 새로운 모습을 관찰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짧은 간격으로 벤치와 쓰레기통이 즐비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형태도 다양합니다. 그런 새로운 풍경을 모두 기록해둡니다. (2) 공간 답사: 학과에서 주기적으로 전공 답사, 공간 답사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엔 공간에 대한 밀도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기에 더 확실하게 와닿곤 합니다. 따라서 기회가 생기면 빠짐없이

참석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도시, 건물, 공간을 들여다보고, 알아보고, 기록하는 경험이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므로 최대한 많이 경험하시길 추천합니다.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한 마디]

Q 내가 선택한 전공은 어떤 학생에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하나요?

‘부동산, 공간 분야’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폭넓게 배우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디자인 트랙의 경우(제가 디자인 트랙이기에 의견이 의도치 않게 편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하시는 분이면 더욱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거환경학과와 방향성은 공동 주택을 설계하든, 팝업스토어를 설계하든 디자인적으로 화려한 공간보다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환경과 사람에 감수성이 있는 분이라면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20학번 김희연



[전공 소개]

의상학과에서 배우는 것들은 크게 이론과 실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론은 크게 의상과 관련된 이론(미학,복식사), 의류 소재, 패션 산업 전반에 관한 마케팅 등을 배우며, 실기는 기초적인 의상 제작(패턴, 드레이핑)과 더불어 디지털 패션 디자인(일러스트, clo 3D, 텍스타일 CAD) 등을 공부합니다. 이 외에도 패션 산업, 의상과 관련된 폭넓은 분야의 내용들을 배웁니다.

[전공 선택 계기]

1학년 입학하자마자 가장 큰 고민거리는 ‘어떤 전공을 선택할까?’였습니다. 학과가 자율전공학과인 만큼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직 전공, 진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입학하여 동기들과 이야기해보니 대부분의 동기들은 한 두 가지 전공 중 고민하고 있을 뿐 큰 방향성을 정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관심있었던 정보디스플레이학과, 경영학과, 미디어학과 (전언론정보학과), 의상학과 강의들을 수강했고, 그 중 가장 흥미있게 느껴졌던 의상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주변 친구나 선배, 부모님 모두 제 선택을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취업이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대부분 정보디스플레이학과나 경영학과를 추천했습니다. 당시 제 전공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진로 고민 관련된 책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직업을 갖고 살지 않는 시대이고, 끊임없이 공부해야하는 시대이기에 공부할 때 가장 흥미롭고 즐거웠던 것을 기준으로 전공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공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본인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한 전공을 선택한다고 꼭 그 분야로 진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4년의 전공 공부와 그 이후의 커리어에서 본인의 성향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를 예시로 설명을 해보자면, 저는 반복적이고 고리타분한 것들을 싫어하며 좋아하는 일이라면 피곤함을 잘 느끼지 못하고 밤을 새서라도 끝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래 쪽 버티고 앉아서 하는 일보다는 빠른 속도로 추진력있게 프로젝트를 수행해내는 것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편입니다. 저는 전공 선택 시 저의 이러한 성향을 바탕으로 전공 특성 상 프로젝트성 작업이 많은 의상학과가, 그리고 넓게는 패션 산업이 잘 맞다고 판단되어 의상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0살에는 초,중,고등학교라는 틀 안에서만 생활하다보니 아직 본인의 성향 파악이 어려울 수 있고, 잘 모르겠는 학생들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입학하자마자 아닌 1학년부터 2학년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에 전공 선택이 이루어지는 만큼, 1학년 기간 동안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에 너무 스트레스 받기 보다는, 다양한 전공 수업을 들어보고, 교외로도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해보며 본인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Q 간단히 본인의 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이 전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Q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조언은 무엇이었고, 누가 해주었나요?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전공 공부의 현실]

Q 전공 선택 전후로 기대했던 점과 실제 느낀 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전공 선택 후 가장 기대했던 점은 졸업작품 패션쇼였습니다. 의상학과는 졸업을 위해 직접 디자인, 제작 한 옷으로 졸업작품 패션쇼를 해야하는데 이 경험이 가장 기대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졸업작품 패션쇼에서 준비 위원장 자리까지 맡아 제 의상의 디자인 및 제작 뿐 아니라, 전체 졸업작품 패션쇼의 전반을 기획하고 준비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힘들기도 하고 지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제가 기대했던 의상학과 모습이고, 기대 이상의 성취감을 가져다 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전공 강의 과제들 모두 제가 기대했던 것과 같이 흥미롭고 성취감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제가 이러한 성향이 아니었다면 정말 힘들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의상학과는 학과 특성상 타학과들과 달리 중간, 기말고사 개념보다는 매 주 주어지는 과제 수행, 또는 최종 작품 포트폴리오 제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한 번 잘 봐야하는 '시험' 보다는 꾸준하게 잘 해내서 마무리하는 '과제'에 더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기간마다 스트레스 받아하는 타학과 친구들을 보며 다시 한 번 제가 제 성향에 맞는 학과를 선택했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의상학과에도 중간, 기말고사가 없지는 않습니다 ㅎㅎ)

Q 전공에서 추천하고 싶은 교과목이 있다면?

가장 추천하고 싶은 교과목은 '어패럴 디자인'이라는 교과목입니다. 해당 강의는 의상학과 졸업작품 패션쇼를 맞출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교과목에서는 가상의 패션 브랜드를 창업한다고 생각하고 브랜딩, 마케팅부터 의상 기획, 디자인, 제작, 룩북 촬영까지 실제 패션 브랜드 운영 전반의 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는 교과목이라 과제량도 많고 해야하는 과제의 범위가 광범위하지만, 그만큼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었던 교과목입니다.

[전공 관련 활동]

Q 전공과 관련하여 참여한 활동(동아리, 공모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저는 의상학과 내 학회 'KHUCTS (큐츠)'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원으로 한 학기 참여하여 <연>이라는 패션 전시에 참여했고, 이후 부회장으로 지원하여 <Home Sweet Home>이라는 패션 전시를 기획부터 준비했습니다.

의상학과 교과목들 중 팀 프로젝트를 요구하는 강의들이 많아서 초반에는 팀 프로젝트를 함께 할 동기를 구하는 것부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과생으로써 전과한 과의 동기들과 친해지는 데에는 학과 동아리나 학회에 참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해당 전공과 관련한 경험 중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의상학과에서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매 해 진행하는 해외 전공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라는 세계적인 패션 스쿨에서 한 달 간 전공연수를 이수했습니다. 학과를 통해 개인으로는 경험하기 어려웠을 것들을 경험하고 소중한 추억 쌓아왔던 것 같아서 되도록 학점을 잘 유지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꼭 참여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한 마디]

Q 내가 선택한 전공은 어떤 학생에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하나요?

의상학과는 우선 패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학생이 선택해야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프로젝트성 과제를 잘 수행해내고, 타인과 협업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에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학과 생활 내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도 본인의 할 일을 잘 해내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잘 해냈던 것 같습니다.

[졸업생 추가 질문]

Q 전공이 실제 사회생활이나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패션 산업 특성 상 항상 빠른 트렌드에 발 맞추어야 합니다. 학과 강의 중에도 트렌드를 분석해야하는 과제들이 많았는데, 이런 과제들을 수행했기에 실제 사회생활에서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트렌드를 비교적 빠르게 잘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팀 프로젝트가 많고, 추진력있게 프로젝트를 수행해야하는 과제가 많다보니 실제 사회생활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협업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Q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과정을 소개해주세요.

사실 저도 올해 2월에 졸업했다보니 아직 진로를 정확하게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패션 쪽 외에도 뷰티 쪽에도 관심이 생겨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자 뷰티쪽 인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흥미롭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분야 쪽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려고 합니다.

Q 후배들에게 실무 또는 진로와 관련된 조언을 해준다면?

저도 아직 실무까지도 아니고, 진로도 정하지 못해서 조언을 해도 되는 위치인지 모르겠습니다 ㅎㅎ 다만 학교 생활 중 스스로에게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해보는 경험을 쌓아보는 것이 중요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21학번 박영서

재학생 이야기

[전공 소개]

Q 간단히 본인의 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이 전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조리서비스경영학과 식품영양학과(다전공)

조리서비스경영학과(조리푸드디자인학과)

조리서비스경영학과에서는 조리인으로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개인 또는 식품위생과 외식산업에 대한 기초 및 심화 지식을 기반으로 조리실습을 통해 조리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마케팅 관련 수업을 통해 외식산업의 현제에 대해 배우고 기업과의 연계 수업과 전공연수 등을 통해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식품, 영양의 2가지 측면으로 나뉘어 식품의 기초적인 조성과 원리, 식품 위생, 신체 대사 및 영양 관련 식사요법 등 다양한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실험수업을 통해 원리를 실제로 실험해보며 보다 동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영양사가 되기 위한 다양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전공 선택 계기]

Q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려서부터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요리를 실제로 자주 하며 자연스럽게 요리와 관련된 진로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음식은 맛있다는 감각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즐거운 추억, 행복한 감정을 주는 매개체로, 이러한 음식을 알레르기나 같은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즐기지 못한다는 것이 큰 한계로 느껴졌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 특성에 구애받지 않고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싶었고, 제 요리를 먹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끼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양한 조리 실습과 전공연수 프로그램, 실무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조리학과에 지원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리와 외식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배우던 중 이렇게 다양한 맛을 내는 음식의 화학적 구성과, 조리 원리, 식이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갔고, 심화 지식을 얻고자 식품영양학과 다전공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조언은 무엇이었으며, 누가 해주었나요?

스스로가 준비되어있다면 언제든 찾아온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기회가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두라는 말과, 막연한 걱정은 해소될 수 있으니 행동에 옮겨 걱정을 완결된 다른 것으로 바꾸라는 조언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각 조언은 학과 선배님께 들었던 것인데, 전공 선택에 대해 많이 고민했고, 실제로 해당 전공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기대와는 다르지 않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두 조언을 통해 성공하면 성공하는대로, 실패하면 실패 나름대로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준비가 되었고, 해당 전공을 더 나아가고 싶거나, 다른 방향으로 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다양한 것들을 쌓아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본인의 행복과 삶의 목표를 뚜렷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그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해보고, 단순히 학교, 직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궁극적인 스스로의 삶의 목표를 결정해 이를 이를 방향이 되어줄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전공 선택 전후로 기대했던 점과 실제 느낀 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전공 공부의 현실]

전공 선택 전 기대했던 것은 전공 관련 이론 지식을 얻는 것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활동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교수님들께서 강의력도 좋으시고 질문에도 상세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크게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제 성격적 특성 상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지 않는 편이라 선뜻 나서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약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에 좀 더 나서서 참여하거나 말을 걸어볼걸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Q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저는 스스로의 지식 함양과 타인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며 평소 지녔던 궁금증이 해소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전공 지식을 활용해 도움을 줄 때 전공 선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실습이나 실험 수업에서 스스로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며 매우 뿌듯한 기분이 들었고, 교수님의 이론 설명과 함께 직접 행동해보며 매우 즐거웠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감정들이 쌓여 최종적으로 저의 진로 설정에 결심을 굳혔을 때 전공 선택을 잘 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Q 전공에서 추천하고 싶은 교과목이 있다면?

식품학 과목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식품과학적인 내용을 가장 먼저 배울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으며 앞으로의 전공 생활에서 기반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이외에도 되도록 다양한 실습 및 실험 강의를 수강할 것을 추천합니다.

[전공 관련 활동]

Q 전공과 관련하여 참여한 활동(동아리, 공모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호텔관광대학교 내 제과 소모임인 '크렘' 활동을 했습니다. 제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끼리 모여 제품에 대해, 제조 방식과 재료학에 대해 스터디를 진행하고, 이를 실제로 제조해보으로써 지식과 기술을 연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모임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우들 앞에서 시연해보거나 주제를 정하고, 재고를 관리해보며 더욱 다양하고 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해당 전공과 관련한 경험 중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조리학과와 경우 학과 내 행사인 WFF(World Food Festival) 참가와 해외 전공연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WFF 행사의 경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메뉴 결정부터 판매까지 진행해보며 본인의 꿈을 펼칠 수 있고, 다양한 선배들간의 만남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외 전공연수를 통해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커리큘럼의 수업을 듣고, 해외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더욱 미래에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확장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식품영양학과와 경우 실험 및 실습 수업을 많이 수강해보는 것과 영양사 현장실습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론 외에도 실제 실험 및 실습을 진행해보며 다양한 연구의 길에 대해 미리 접해볼 수 있으며 스스로가 몰랐던 또다른 적성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양사 현장실습의 경우 실제 영양사의 업무에 대해 이해하고 수업과 경험을 연동해가며 현장실습에 임했을 때 더욱 인상깊고 의미있게 다가왔고, 여러 영양사 선생님 및 조리사분들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기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한 마디]

Q 내가 선택한 전공은 어떤 학생에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하나요?

우선 식품이나 영양 및 식품위생적 측면에 대해 관심이 많고, 직접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거나, 원리에 대해 궁금증이 많은 학생에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꼼꼼하거나 섬세한 성격이면 원활한 전공 적응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약학대학 약과학과

14학번 노정훈



Q 간단히 본인의 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이 전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전공 소개]

제약회사에서 전문 인력이 되기 위한 학문들을 배웁니다. 생물학과, 화학과 그리고 약학과의 공통분모로 배울 수 있는 과가 약과학과입니다.

Q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공 선택 계기]

어릴 때부터 건강보조식품을 챙겨 먹으며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호기심이 쌓여 약과 관련된 학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 진로를 고민할 때도 이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어서 약과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조언은 무엇이었는지, 누가 해주었나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런 관심사를 갖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자, 약과학과를 추천해주셨습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실제로 전공을 선택할 때는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이 관심이 앞으로 어떤 직업과 연결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에, 2학년 때 화학과 생물 중 화학을 선택했고, 특히 유기화학에 깊은 흥미를 느꼈어요. 이 경험이 대학원에서 유기합성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지금은 연구원이라는 직업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전공 공부의 현실]

Q 전공 선택 전후로 기대했던 점과 실제 느낀 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약과학과에 진학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4년 동안 제약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었어요. 실제로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약과학과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약학과와 약학과 교수님들의 수업도 들을 수 있어서 약에 대한 심화된 지식은 물론, 실제 제약회사에서 어떤 약을 개발하는지, 현재 업계의 트렌드는 무엇인지도 배울 수 있었죠. 또한, 실제 제약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선배님들과의 교류를 통해 회사에서의 실무가 어떤지,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Q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제약회사 취업을 준비할 때, 면접에서 “왜 다른 분야(석유화학, 재료공학 등)가 아닌 제약회사를 선택했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약과학과를 선택해 꾸준히 공부해왔다는 점, 그리고 제약 분야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애정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이 큰 강점이었어요.

Q 전공에서 추천하고 싶은 교과목이 있다면?

1. 약물학

항암제, 항정신병제, 항염증제 등 다양한 약물의 작용 기전을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약이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원리를 알게 되면 정말 흥미로운 거예요.

Q 전공과 관련하여 참여한 활동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2. 의약화학

Small molecule(저분자 화합물)이 효소와 어떻게 결합해 약효를 내는지 배우는 학문입니다. 신약 개발에 관심 있다면 필수로 들어야 할 과목이에요.

3. 유기화학

화학의 기본이 되는 과목으로, 3학년 때 화학 쪽으로 진로를 정할지, 생물 쪽으로 갈지 결정하는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유기화학이 재미있다면 화학 전공을 적극 추천합니다.

[전공 관련 활동]

학부연구생으로 들어가면 학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화학회에 참석하였습니다.

Q 해당 전공과 관련한 경험 중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한중일 학점교류회를 통해 중국, 일본의 약학대학 학생들과 교류하며 각국의 제약산업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한 마디]

평소에 자연과학을 좋아하고, 약에 관심이 맞는 학생에게 잘 어울립니다.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졸업생 추가 질문]

Q 전공이 실제 사회생활이나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실제 제약회사에 취업을 해보니 약을 개발하기 위한 임상 단계들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학과에서 배운 면역학, 생화학, 약물학 등을 통해 약의 작용 기전에 대한 이해도 빠르게 할 수 있고, 업무를 할 때도 보다 넓은 시야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과정을 소개해주세요.

저는 학부생 때 유기화학 과목을 좋아했습니다. 유기화학을 공부하면서 실제로 화합물들이 합성이 되는지 궁금했고, 관련 실습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했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큰 흥미가 생기게 되었고, 학부생 3학년 때 박보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학부연구원으로 유기합성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구원이라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Q 후배들에게 실무 또는 진로와 관련된 조언을 해준다면?

연구원을 꿈꾼다면 대학원에서 다양한 실험을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여러 과제에 참여해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해보세요.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연구 직무를 할 때 큰 자산이 됩니다.

약과학과는 제약회사에서도 선호하는 전공입니다. 취업을 고민한다면 약과학과 전공을 강력히 추천드려요. 교수님들도 학생들의 진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 고민이 있을 때는 지도 교수님께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졸업 선배님들과의 교류의 날, 교수님들과의 소통 행사 등 진로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많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공 선택이 앞으로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스스로의 관심과 열정을 믿고 도전해보세요.



자율전공학부

글로벌리더전공

| 17학번 봉건우

졸업생 이야기

[전공 소개]

Q 간단히 본인의 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이 전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글로벌리더전공에서는 법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정치외교, 행정,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지식을 한 번에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교육을 받습니다. 법학개론부터 다양한 법적 교양,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적인 법 과목을 공부하며, 이러한 법 지식을 기반으로 사회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을 결합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전공 선택 계기]

Q 이 전공을 선택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기본적인 법적 지식을 함양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전문가 수준의 지식은 아니더라도,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기본적인 법적인 지식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법조인이 되고자 하지 않더라도, 법이라는 학문은 논리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논리력을 키우는 데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되었으며, 법적 배움에서 파생된 논리력을 기반으로 타 학문을 공부했을 때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 조언은 무엇이었는지, 누가 해주었나요?

글로벌리더전공을 선택했지만 법조인이 될 계획은 없는 선배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해당 학문을 전공하고 법조인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 배움이 무의미한 것이 아닌, 논리력이라는 매우 중요한 기반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글로벌리더전공을 선택할 시 법 과목 뿐만 아니라 법, 정치외교, 법, 행정 등 매우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학과 내 트랙을 결합하여 다양한 학과의 전공 수업을 우리의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폭넓은 배움을 대학에서 받는데 유리할 것이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Q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본인이 생각하는 현재의 진로에 너무 매몰되지만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선택을 해야 할 시기인 대학교 1학년 막바지에 생각했던 진로와 막상 실제로 내가 선택할 진로는 다른 경우도 많으며,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많은 사람의 삶을 통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간접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취업이나 일자리, 혹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진로에만 매몰될 것이 아닌 자신을 돌아보고 본인이 매력을 느끼는 타인들이 어떤 삶의 궤적을 만들어왔는지 한 번쯤 생각해볼 시간을 가질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공 공부의 현실]

Q 전공 선택 전후로 기대했던 점과 실제 느낀 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법과목은 알아야 할 것이 매우 방대합니다. 암기해야 할 것도 매우 많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논리력이 단순히 수업만 듣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 진지하게 이 과목에 대한 심도있는 공부를 거듭해야 길러집니다. 본인이 정말 진지하게 법이란 과목을 단순히 '전공'으로서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공부' 할 자신이 있는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Q 전공 선택을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정치, 사회면의 어려운 뉴스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상의 다양한 이슈들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할 때 뿌듯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전공에서 추천하고 싶은 교과목이 있다면?

또한 논리력이 길러졌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저는 스스로 말과 글에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적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 사안에 대해 법관들 내지는 법조인들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다루는지에 대해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사안에 대해 어떻게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설득력있게 풀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바이블을 익힌 것과 같은 생각이 들었을 때 매우 뿌듯했습니다.

헌법 과목을 반드시 들어보길 추천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스템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질서는 어떤 논리와 가치관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알게 되면 사회를 보는 시선이 조금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전공의 과목에만 매몰되기보다 좀 더 다양한 학과의 과목을 조금씩 들어보길 추천합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학과의 커리큘럼상 전공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졸업요건을 잘 검토하면서 그 틀 안에서 비교적 다양한 전공의 과목을 들어보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경험과 지식이 모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전공 관련 활동]

Q 전공과 관련하여 참여한 활동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학과 내에서 진행했던 법학술제에 두 번 나가서 수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험과 책으로만 공부했던 법이라는 과목을 입법의 분야에서도 보고, 학술의 분야에서도 직접 알게나마 확인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책으로서만 공부하는 법이 아닌 실제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직접 고민해볼 기회였고, 특히 법조인을 꿈꾸고 있거나 입법의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우분들께는 내가 배운 지식들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니 꼭 한번 참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Q 해당 전공과 관련한 경험 중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리트 시험은 한번 꼭 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법조인을 희망하진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한번 쳐 본 경험이 있는데, 이는 법조인을 희망하던 희망하지 않던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적성에 맞는지 여부를 한 번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리트는 법적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논리력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시험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면서 그 학문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논리력이 얼마나 늘었는지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한 마디]

Q 내가 선택한 전공은 어떤 학생에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하나요?

법조인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전공입니다. 나아가, 법이라는 과목이 단순히 좁은 의미에서의 법적 지식만을 함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매우 다양한 우리 사회 분야에서의 논쟁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회를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싶으신 분, 꼭 법조인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법적 지식을 쌓고 논리력을 기르고 싶으신 분, 법조인이나 공무원시험 등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께 잘 맞을만한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생 추가 질문]

Q 전공이 실제 사회생활이나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먼저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나의 논리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고, 나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알게나마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이 큰 수확이 되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 폭넓은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은데, 깊은 지식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의 전문지식에 대한 관심을 보일 수 있거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및 전공자들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데에서 실생활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Q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과정을 소개해주세요.

현재 저는 정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더전공에서 배운 법적 지식들과 논리력, 그리고 우리 사회를 크게 볼 수 있게 확장된 시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자율전공학부 학생회장, 총학생회장 등 학생 대표 역할을 맡으면서 내가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일, 불편함을 해소하는 일,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글로벌리더전공 학생으로서 배웠던 법학 지식, 길러왔던 논리력, 그리고 다양한 전공 과목들을 수강하고 또 많은 전공의 선후배들을 만났던 그 경험 덕분에 세상을 비교적 다양한 시선에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분야는 한 곳에 매몰된 시각보다는 사회 전반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전공학부의 일원으로서 함께한 덕분에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Q 후배들에게 실무 또는 진로와 관련된 조언을 해준다면?

전공선택을 해야 할 학년부터 너무 차후 진로를 확정짓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한 기회가 열려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길을 탐색하길 추천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특권이 있습니다.



